

서울시, 약자를 위한 우수 디자인제품서비스개발지원 본격 착수

디자인 기획·설계,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총 9억원 지원

서울시가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25개의 디자인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기업당 최대 4천만원의 개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약자동행 디자인이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의 개선을 돕는 디자인을 말한다.

약자동행 디자인의 예시로는, 계단을 계속하여 올라가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계단 난간 휴게시설, 성인보다 낮은 신장의 아동을 고려해 높이를 다르게 제작한 세면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등이 있다.

이러한 약자를 위한 제품은 세심한 관찰과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기에 약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제품을 독창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디자인적 사고와 문제해결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약자 관련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적고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개발에 나설 유인이 부족하여 초기 시장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



▲ 약자를 위한 디자인 예시(점자 스마트워치)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금년도부터 이러한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 디자인기업을 선발하여, 개별 기업당 최대 4천만원씩 총 9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여 약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8월 중순부터 4개월간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며, 개발지원금은 ▲디자인 기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품 개선과 고도화를 위해 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모집대상 자격은 서울 소재의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디자인 주도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을 말하며, '디자인 주도기업'이란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현재 약자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디자인 제품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시에서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우수 디자인기업을 육성하고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백운계곡 등 4곳 수질조사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6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 지역 수질 조사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6월부터 9월까지 계곡 등 물놀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하천·계곡 4곳의 수질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양주(일명유원지) ▲포천(백운계곡) ▲가평(용추계곡) ▲연천(아미천) 등 4곳의 상·중·하류 총 12개 지점이다. 조사 주기는 이용 시기별로 차등화해 6월은 월 2회 이상, 7월부터 8월까지 월 4회 이상, 9월은 월 1회 이상 등 총 11회 이상이다. 해당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신속히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대장균이며, 물놀이 행위 제한 권고기준인 500 개체수/100mL 이상이면 이용객에게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물놀이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 및 수질개선 강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수질기준이 초과하면 정밀 오염원인 조사를 위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

량(BOD), 부유물질(SS), 총인(T-P), 총질소(T-N) 등을 추가 검사하여 오염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해 도민에게 더욱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한다.

6월 1차(8~19일) 수질 조사에서는 12개 지점 모두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청정계곡을 방문하는 물놀이 이용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면서 "최우선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기준 초과 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며, 항상 청정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GB대학봉사단 동해안 1300리 '비치코밍(Beach Combing)' 실시

- 6월 환경의 달 맞아 경북 동해안 해변 환경정화 활동 전개 -
- 대학생이 주도하는 새로운 자원봉사 시대 경북이 선도 -

경북도는 26일 포항 영일만 해안길, 경주 오류고아라 해수욕장,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울진 후진 해수욕장에서 GB대학봉사단 500여명이 모여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해안가 쓰레기를 주위 담는 '비치코밍' 활동에 나섰다.

비치코밍은 Beach(해변)와 combing(빗질하다)의 합성어로 해변 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해변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 비치코밍 : 해변을 빗질하듯 훑으며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

주최 및 주관기관인 경북도와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포항·경주·영덕·울진자원봉사센터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날 비치코밍 활동을 통해 동해안 5개 해변에서 1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GB대학사회봉사단을 후원하는 포스코와 한국수력원자력,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지속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5월 GB대학봉사단 공식 출범 이후 오는 첫 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2일 국민 3단체(경상북도새

마을회·한국자유총연맹경상북도지부·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와 경북지구JC특우회, 해병대전우회 경상북도연합회와 GB대학사회봉사단이 연합해 경북 동해안 일대에 대대적인 비치코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제12회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목포에서 개최



청년이 찾는 큰 목포에서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가 열린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남연기캠프는 배우를 꿈꾸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잠재 재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았다.

이번 캠프는 전남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6일까지 50명을 모집한다.

캠프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5박 6일간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은 학부모와 영상산업 관계자가 초청돼 발표회가 열린 예정이다.

연기캠프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감독이 강사로 참여하고, 캠프 과정 중 배우 최수종의 특강이 이뤄진다. 또한 참가 학생

의 고민을 들어주는 1:1 멘토링이 준비돼 있다.

이에 연기·영상 교육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가방법은 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남영상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목 튀는 전남권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들이 연기캠프를 통해 한껏 발휘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진로개혁의 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기회가 장이 되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경북도의회 예결위,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사업 집행률 제고 등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월급 받는 청년농부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청년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려면 소규모 농업이 아닌 대규모, 그리고 기계화 위주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안동의료원 난민센터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 계절 근로자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등을 주문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트라우마 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포항시와 잘 협의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은(상주)은 친환경 농산물의 산지 규모화와 조직 육성 사업의 진행 현황, 월동기 꿀벌 실종 현상에 따른 피해 양봉농가 긴급 희생 지원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이 협회와 사업단 간에 병행 다음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병상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



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한 중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보급 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예산의 타당성, 원전 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원전 해체 기술이 완성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500조 규모의 아주 큰 시장이므로 경북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회사가 제대로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응 실태,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문제, 호국 선양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불용이 많은 이유를 지적하며,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달라 부탁했다. 또한 돌봄 교실 운영 지원 관련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끼리 서로 협조하여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도의 대안학교 운영 및 관련 예산 현황, 과수화상병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과수화상병을 그냥 방치하면 경북의 사과 주산지 명맥이 끊

어지기 때문에, 도내 시군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 숨기지 말고 알리지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제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적극적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도청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광진흥기금의 낮은 집행률을 예로 들어 홍보부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 집행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우수 성적 거머쥘 시 체육교사·감독 등 지도자에 대한 연수 등 보상도 중요하지만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우리 도에서 포항영일신항만(주)에 투자한 78억원이 자본잠식으로 장부가액이 "0"이 됐다며 도 차원에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사업 자부담금 예치, 보조금 정산 법정기한 준수 등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장기적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 연도를 표기할 것과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원안 가결 됐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이해원 의원, '아름다운 경기둘레길' 활성화 방안 제안

경기둘레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지역주민과 함께 둘레길 활용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해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26일 10여명의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해원 의원은 "경기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행정적 지원과 시민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경기둘레길만이 가진 정체성과 특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소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관심을 갖고 "경기둘레길

만족도와 요구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 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로 조성되어 있다. 대명항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로,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경기평화누리길, 경기수길, 경기물길, 경기갯길)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논의됐다.

경기갯길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의 준비를 거쳐 2021년 11월 15일 타 권역의 길과 함께 경기둘레길 전 구간이 개통됐다.

이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제안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주용 도의원,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용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6일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날 행사는 김주용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을 포함한 약 40여 명의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전남 교육 정책 방향 설명 및 위원회 운영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도의회, 전라남도, 산업체, 대학교 부문 기관추천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단체, 지역 인사 부문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됐다. 위원은 총 40명으로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 기능은 도내 민·관·산·학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의 선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기구이며, 기존의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새롭게 확대·개편한 것이다.

김주용 의원은 "전남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전남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학생 교육에 중심을 두고 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중배/기자

부산시의회 이승우 시의원, 부산 스포츠산업 비즈니스 교류회 참석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26일 벵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부산 스포츠산업 비즈니스 교류회'에 참석했다.

이번 교류회는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가 함께 주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스포츠산업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스포츠산업 기업 성장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됐다.

교류회에 참석한 이승우 의원은"4차 산업혁명시대라 접어들면서 스포츠산업 또한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며,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들이 오늘de 자리를 빌려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은 최근 ICT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고 제조산업 기술이 우수하여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나고,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의 최적화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작년 K-웰니스페어 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웰니스와 헬스케어 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 앞으로 부산시의회에서 스포츠산업 기업들의 사업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교류회 참석 소감을 밝혔다.

송준진/기자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ESG포럼 토론회'서울시 ESG 전담 조직 만들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ESG서울포럼이 주최한 ESG동향과 대응방향(주제)의 토론회에 나섰다.

ESG서울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최·주관한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포럼이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과 120다산을 재단 이재 이사장을 포함한 ESG 관계자 등 90여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박영한 의원은 ESG를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고, 서울시에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ESG를 공적 부분만큼은 친환경(E)·사회적 책임(S)·투명한 준법 준수(G)로 정의해야 한다"라며, "공적 영역인 서울시가 전국 시·도의 대표로서 ESG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ESG 관련 컨설팅을 받기에 열악하고, 관련 규정도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에 벅겁다"며 "서울시가 ESG 전담부서를 만들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ESG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사례, 기후변화와 ESG 상관관계, ESG와 MRV의 산업적 적용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이하 내포특위)'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내포특위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관련 부서로부터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현황 관련 업무를 보고 받고, 인구 정착을 위한 핵심 시설 유치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KBS 충남방송총국 추진(공보관) ▲내포 첨단산단 기업유치(투자총장정책관) ▲의과대학·건축물경관조경·공공기관·명지병원·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정상화 추진·유치·건립(공공기관유치단) ▲내포신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연결 추진(도로철도항공과) 등이다.

이날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은 "내포신도시 발전의 핵심 사항은 인구 유입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쏟아 달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정상화 추진 관련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집하시설 추진으로 예산 절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며 "앞으로 집하시설 정상화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아파트 및 상업시설의 상가 공실률, 공공기관이전 추진과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KBS방송총국 유치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문제점 파악·개선하고, 내포신도시도로·철도 연결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촉구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이 제22회 2차 본회의에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 등이 조성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천방향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이다"라고 말하고, "시에서는 시민의 노후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 의원은 '노인기본조례'를 발의했고, 이를 기준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천방향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전 세대와 소통하고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노후를 함께 준비하여 내 부모, 나 자신, 나의 자식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공영애의원은 화성 향남 출신으로 수원여고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경기도의원을 거쳐 제8대 화성시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제9대 화성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1월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로 선출됐다.

신도시 및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성 서부지역의 복지와 문화교육 등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

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시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방명인·최수진 . 편집국장:최재은 . 부회장:박유석 .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락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빌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시 민선8기 1주년 “새로운 변화의 시작”



활력 넘치는 경제·관광도시
기반 마련으로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솟아나

첨단배어링 국가산단
승인·영주댐 준공 가시화
등 큰 성과 거둬

- 첨단배어링 국가산단 승인·영주댐 준공 가시화 등 큰 성과 거둬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민선 8기 박남서 영주시장 체제가 1년이 됐다. 그의 시정철학은 항상 시청 문턱을 낮추고,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펼쳐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으로 취임 초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취재진은 박 시장의 시정철학의 노력 결과 얻은 성과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 봤다.
영주시는 청령도 2단계 향상, 민선 8기 전국 지자체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 등급(SA) 달성에 이어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승인, 영주댐 미준공 해결, 종합 장사시설 설치, 영주 유통공사 설립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고,

또 국립 공원 내 개인 소유지 1천 705km²를 해제시켜 재산권 침해해 막았으며, 이를 통해 소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광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되는 등 지역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며 시민과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눈에 확 띄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있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 영주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뜨거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영주시의 꾸준한 요구와 노력으로 개인 소유지 1천 705km²의 면적이 소백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됐다. 오랜 기간 동안 각종 개발행위 금지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관광정책에도 청신호가 켜져 지역발전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주시는 지난해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영주시원축제, 농특산물 축제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읍몰 리스와 업무협약 체결과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 확보 등 숙원해결로 시민과 약속 지켰다

영주시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업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 2023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정책 시상식에서 시는 전년 대비 127.4% 증가한 수출액 369백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수출정책 강화와 온·오프라인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또 지역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도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홀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10개소 홀플러스 매장에 영주 농특산물 전용 매장 'THE 영주'를 개소한 데 이어 시가 전액 출자하는 영주 유통회사 설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나 해묵은 주민숙원사업이자 공약사업인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건립도 부지 공모를 통해 이산면 일대로 확정돼, 사업추진 7년 만에 값진 결과를 얻어 시는 250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영주복지, 든든함 더하기 +

민선 8기 성과 중 시민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분야는 아동 관련 정책으로 아이들이 안심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아이신나 강바람 놀이터와 실내 놀이터를 개장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이 밖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건강 증진비를 바우처 카드로 변경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고, 적십자 병원 병상 증축,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예우 시책 강화,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박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행복과 영주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더욱 큰 도약을 할 차례”라면서 “시민이 OK 할 때까지 절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 조성사업이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역성 심의 등 10여 개 관문을 통과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사실상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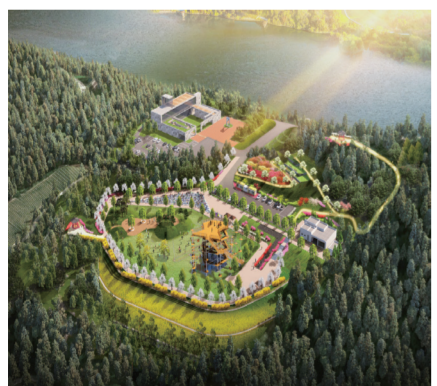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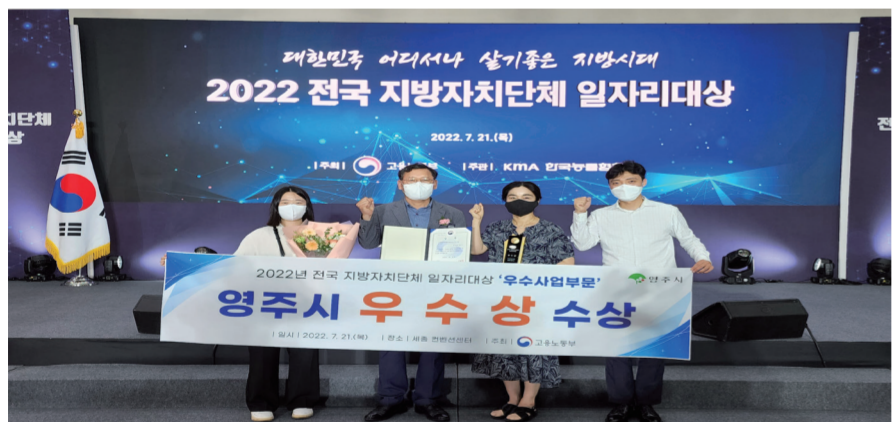
오는 7월~8월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승인 된다면 최근 5년 신청된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빨리 승인된 사례가 된다.

배어링 및 경량 소재 산업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사업 연구·개발 지원, 배어링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 등 발로 뛰며 노력한 영주시의 시정정책이 확연히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5대 분야 50개의 청년지원사업에 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지원책을 대폭 강화했다.

▲다음으로 100만 관광객시에 한 발짝 더 성큼 다가 갔다.
2016년 본담이 완공된 후 지금까지 7년간에 걸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애를 먹던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온 댐 준공도 드디어 해법을 찾았다.

이 댐 준공을 위해 지난 1년간 박 시장이 그 어떤 현안보다 우선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경제”에 거둔 성과들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영주시는 대규모 신규 산단 조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맞춤형 기업지원,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 지역경제 성장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

결과, 준공의 걸림돌이 됐던 문화재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댐 준공이 완료되면, 각종 민원 과 댐 주변 개발사업 제약 등 해결되지 않

다음은 박남서 영주시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정책에 민심의 뜻을 입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이라는 각오로 지난 1년간의 시정을 이끌어 왔다. 그의 머리에는 온통 ‘경제’, ‘영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영주지역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왔다”며 지역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달려온 한 해였다고 자평하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

Q: 민선 8기 1년에 대한 소회는?

A: 예기치 못한 신병 치료로 여러분께 우려를 안겨드렸다. 지난 3월 잠시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곧 업무에 복귀해 시정을 추진해왔다. 면역활화를 위해 잠시 대민 접촉이 자유롭지 못했다. 7월부터는 예전처럼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시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준 직원 여러분과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Q: 지난 1년간 시정의 주요 성과는?

A: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신속히 풀고 영주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 해왔다.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하며 업무에 임해, 정책 방향이나 일하는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가장 마음에 남는 것으로는 공무원 청령도 향상,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기 지정 승인, 영주댐 준공이다. 또, 종합장사 시설 설치, 영주 유통 회사 설립 등 숙제를 열심히 해 온 결과 공약실천계획 최우수(SA)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

Q: 민선 8기 전국 지자체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향후 추진할 역점사업은?

A: 지난 1년 동안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시정철학을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시민들의 평가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사업, 영주댐 수생태 국가 정원 조성, 가흥 공원 전망대 설치,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국도 28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영주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자족도시를 향한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많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

지 지정 승인, 영주댐 준공은 올 하반기 영주시가 사활을 걸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지역 현안 사업이다. 경제와 관광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를 반드시 살려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

Q: 영주시의 민원 행정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A: 취임 후부터 줄곧 민원 행정 혁신을 강조해왔다. ‘시민이 OK 할 때까지’ 시민이 만족하는 시장 운영을 펼친다는 정치철학을 담아 대대적인 인허가 혁신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 행정처리 기간 단축,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조례 전면 재검토 등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Q: 시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 달라...

A: 지금까지 성과는 또 다른 혁신의 시작이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변화에 집중하는 자세로 영주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정책에 민심의 뜻을’을 입혀야만 좋은 정책이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영주를 만들어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

Q: 영주시의 민원 행정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A: 취임 후부터 줄곧 민원 행정 혁신을 강조해왔다. ‘시민이 OK 할 때까지’ 시민이 만족하는 시장 운영을 펼친다는 정치철학을 담아 대대적인 인허가 혁신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 행정처리 기간 단축,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조례 전면 재검토 등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Q: 영주시의 민원 행정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각으로 뭉쳐진 영주시가 어찌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이렇진대 어찌 영주시의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거두지 않을 수 있을까?」

윤근수기자



경기도, 저출생 대응 위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추진

김동연 지사 주재, 임신·출산 분야 인구2.0 위원회 개최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 등 가족 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임신·출산 분야 전략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엄마·아빠(아이원더 124,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3명의 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제1차(가칭)인구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더라도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기간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 경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며 “제가 이번 달로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회의를 36번 하면 한번 회의 때마다(문제를) 두건씩만 시정해도 70건 이상이 시정될 거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임신·출산 분야 자유토론과 ▲가족 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돌봄희망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신부 헛라인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을 이어갔다.

위원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가족친화 경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윤과 성과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공백 시에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는 50개 사로 확대한다.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가족 친화 기업을 위해 500억 원 규모, 기업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금융지원을 해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이익과 따로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한다.

돌봄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위한 ‘돌봄희망플러스 아이돌봄이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돌봄이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임신·출산 분야에서 도민 요구가 가장 많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률 6,896명으로 지원 대상 확대 시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냉장고 영아시신 발견 사건처럼



▲26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인구2.0 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임신·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임신부가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임신부 헛라인’도 논의됐다. 헛라인은 24시간 전문 상담과 함께 분만, 임신 속식, 양육 용품 지원과 지자체, 법률, 병원 심리치료 연계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구2.0 위원회는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에 대한 회의를 도지사 주재로 계속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도민이 선정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나온 ‘돌봄이 출생, 보편적 지원,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등을 경기도 인구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

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재경(아이원더, 수원), 모리타니타카(아이원더, 안산), 유지영(아이원더, 오산), 최유진(아이원더, 용인), 오현진(아이원더, 화성), 박민지(아이원더, 군포), 김진환(아빠하이, 용인), 신상조(아빠하이, 시흥), 조용채(아빠하이, 김포), 박종철(가족친화 경영 기업대표, (주)지오메디텍), 김상욱(가족친화 경영 기업대표, (주)씨제이케이), 김재면(주)동국 대표), 소지영(주)디에이블 대표), 최승기 KDI 정책대학원 교수, 호정화 아주대학교 교수, 이상식 한국인구복지협회장 등 도민참여단 20명과 경기도 실국장이 참석했다. 또 60여 명의 도민참여단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정책 제안과 각오를 담은 희망 카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만식/기자

양평군, 민선8기 양평군수 취임 1주년 맞이 기념행사 개최

7월 3일 양평군청 대회의실...간담회, 현장방문, 방범순찰 예정



양평군은 오는 7월 3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양평군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며, 민생현장을 찾아 군민과 소통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8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들을 돌아보고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향한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하며,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의 1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오전에는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및 오일장 상인 격려를 시작으로 양평초등학교 교통지도, 7월 월례조회, 민선8기 성과 및 비전 선포, 어르신 배식 봉사자 예정되었다. 오후에는 노인복지시설, 영농현장, 수해복구 현장 등을 방문한다. 저녁에는 야간방범 순찰과 야간경관 조명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의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며,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우리가 만드는 음악극 '보물섬'으로 관내 초등학교생들과 음악으로 창의성 키우는 발판 마련

파주도시관광공사가 202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음악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음악극 "보물섬"'으로 관내 초등학교생들을 만난다.

우연히 보물섬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곳에 탐험을 떠나는 내용을 가진 '우리가 만드는 음악극 "보물섬"'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공유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움직임·바디퍼커션·악기 앙상블·즉흥연주·합창 등 음악의 다양한 형태를 프로그램 안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1~3회차 프로그램에서 익힌 것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4회차는 무대에 서는 경험까지 맞출 수 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은 “우리가 만드는 음악극 "보물섬"을 통해 참여자들의 잠재되어있는 음악적 재능이 창의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초등학교생들이 하게 방학 기간에 완전한 경험으로써의 문화예술교육을 만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영기/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라오스서 열리는 제24회 세계코리아포럼 참가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메콩벨트 허브를 잇다' 주제로 연설

최대호 안양시장이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협력 및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라오스에서 열리는 '제24회 세계 코리아 포럼'에 참석한다.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5박 7일간 포럼 참석 및 라오스 국립상공회의소,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KOTRA 비엔티엔 무역관 등 방문을 위해 27일 출국했다.

세계 코리아 포럼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 공존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제 포럼이다.

올해는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는 라오스 국립대에서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전환시대 동아시아 글로벌 정치경제'를 주제로 열린다.

최 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메콩벨트 허브를 잇다'를 주제로 연설한다. 메콩벨트는 메콩강 유역의 5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을 일컫는 말로, 메콩벨트의 허브인 라오스와 K37+벨트의 중심지가 될 안양시의 협력 등의 내용을 설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통관 사반벳 라오스 외교차관, 송찬 루앙무닌톤 주한 라오스 대사, 조지프 디트리니 미주리주립대 교수(전 미 국무부 대북특사), 엠마 레슬리 평



화와분쟁센터 대표 등 22개국의 오피니언 리더 100여명이 참석한다.

앞서 송찬 주한 라오스 대사는 지난 2월 안양시를 방문해 최 시장과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시는 또 안양과천상공회의소와 함께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및 라오스 시장개척-경제협력'을 위한 수출 촉진 현장설명회'를 열어 시의 수출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안양시-라오스 기업 간 무역 촉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 시장은 포럼 일정을 소화하며 라오스 국립 상공회의소·주라오스 한국대사관·KOTRA 비엔티엔 무역관도 방문한다.

지난 1989년에 설립된 라오스 국립상공회의소는 4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라오스 18개 주 상공회의소의 대표 단체로서, 국영-민간 기업 간 연결고리가 되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시

장은 라오스와의 무역 촉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라오스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정영수 대사와 면담하는 일정도 예정되었다. 최 시장은 정 대사를 만나 라오스의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라오스와의 관계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는 계획이다.

KOTRA 비엔티엔 무역관에서는 관내 기업의 라오스를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동남아 및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핵심루트인 메콩벨트 지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출장을 통해 전 세계에 안양시와 관내 기업들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해외 시장 판로를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평택시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평택시가 지난 22일 배다리도서관에서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도시재생대학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된 도시재생대학은 지역특화재생 및 콘텐츠 연구 과정으로 운영됐다.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의에는 도시재생을 알고자 하는 사람부터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 평택시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특화 재생을 위한 사업을 고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정장선 시장과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진행했으며, 교육 신청 주민 32명 중 26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원평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는 평택시 소규모 주민공동사업으로 준비한 합창 공연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해 수료식의 풍성한 불거리를 선보였다.

정장선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도시재생대학 수료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참여한 모든 수료생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강화군, 여름철 안전한 공원 만들기 '총력'

강화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2023년 여름철 공원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원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감동공원, 남산공원 등 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장마 기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공원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산지형 공원은 남산, 관청, 북산공원에는 사면, 배수로 등을 집중 점검했고, 감동공원, 강화산단 체육공원은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점검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마쳤다.

군은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상황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난대비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편안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 장마 대비 침수위험 현장 방문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은 26일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및 하안동 일대를 방문해 장마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규식 부시장은 지하,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벨브, 차수판 등의 시설 설치 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폈다.

이어 재건축 단지 등 대규모 토목 공사 현장과 작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광명골프연습장 등 침수위험 현장을 방문

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규식 부시장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었던 많은 시민들이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다”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가정에 침수 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시장은 주민들이 침수 방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에 사용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빗물받이 시설이

쓰레기나 덮개 등으로 가려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택 1,00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시는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침수 피해를 겪은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수요를 조사하고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수원특례시, 새로운 수원으로 나아갈 준비 완료!

민선8기 1주년 성과 '1' 경제 및 생활 분야 기반 다지기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 1주년을 맞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실현할 여정의 4분의1을 지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년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이끈 수원시는 경제특례시, 생활특례시, 돌봄특례시를 목표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경제와 생활 분야에서는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성과가 두드러진다. 기업을 유치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며 수원시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 또 탄소중립의 길을 제시하고, 곳곳에서 그린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가꾸고, 안정적인 안전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비하며 도시의 미래를 그렸다.

◇경제특례시를 가동할 엔진을 만든다
민선8기 수원시의 첫 1년은 경제 활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집중한 시기다. 수원시민의 삶을 새롭게 빛나게 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3대 목표 중 첫 번째로 경제특례시를 꿈꿨던 만큼 크고 튼튼한 엔진을 만드는 것은 핵심적이었다.

경제 성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유망 기업과의 투자협약이다. 이재준 시장의 취임 첫 날인 지난해 7월1일 진행된 에스디바이오센서와의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3월 포커스에너지앤에스, 4월 인테그리스 등으로 1년 동안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다.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집약적인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유망기업들이 수원시에 분사 또는 연구소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기업과 투자 유치는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첨단기업이 수원에 동자를 틀고 수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 미래전략을 발표했고,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최고 5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5개 대학과 상호협력 체결했으며, 광고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구상도 시작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모자란 초기 기업이 대내외적 환경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원기업 새빛펀드도 올해 말 운용을 시작한다. 수원시가 출자한 100억원의 두 배인 200억 원 이상을 수원지역 기업에 투자해 수원기업의 성장생태계를 만들 예정이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도 순항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연중 상시 발행해 소상공인에 활력을 더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해 지난 5월 초 진행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소상공인 등 166개 단체와 점포가 참여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 구천동공구시장과 연무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곧 화서시장 아케이드도 설치 완료된다. 수원역 상권을 경기 대표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유튜브 콘텐츠 발굴 및 버스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제특례시로 이끌 청년을 키우다
경제특례시로 도약할 수원시의 핵심 동력은 청년이다. 수원시는 고용과 주거, 자선 형성 등 청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청년의 삶을 지원했다.

청년 정책의 추진체 역할을 하기 위해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수원시청소년년재단은 지난 5월 공식 출범했다. 기존 청소년재단을 개편해 수혜대상을 만 34세의 청년까지로 확대, 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아우르며 전문성 있는 정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수원형 청년정책도 활발히 진행했다. 청나래(면접정장 대여)·청카드(교통비 지원)·수원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 월세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 사업, 희망키움통장-지속적재·내일저축통장·기본소득 등 청년 자선형성 사업이 촘촘하게 지원됐다.

청년 창업기업가들을 양성하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도 활성화했다. 창업교육과 창업오디션 등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이들이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을 획득을 지원했다.

◇경제특례시가 뻗어나갈 교통 갖추다
민선8기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할 교통 문제에 대한 관심도 기울였다.

격차형 철도네트워크를 완성할 동안인 덕원선, 서수원선의 교통편의 향상을 핵심인 신분당선 연장, 사동발달 수원이 더 빨

라질 GTX-C 노선,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등 철도교통망 확충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경기도, 성남, 용인, 화성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5월에는 4개 시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위해 방문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한 성과도 눈에 띈다. 5월 말부터 광고12동에 도입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똑버스'는 한 달여만에 일 평균 770여건의 호출을 수행하며 900여명의 시민들이 더욱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중이다. 150여대의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도 확대되며, 자투리주차장, 공유주차사업 등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인프라를 400여면 이상 확충했다.

◇생활특례시를 지속하는 그린라이프를 그린다
순바닥정원은 수원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문화 확산 사업이다. 도심 곳곳 자투리 공간을 공원으로 꾸미기 시작한 6월 기준 180곳의 순바닥 정원이 조성됐다.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이 개장해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식물을 만나고 그린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된 점 역시 민선8기 주요 성과로 기록됐다.

환경수도를 자처해 온 수원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탄소중립에도 앞장섰다. 시민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유도하는 탄소홀미팅,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물론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틀을 차려차려 갖춰가고 있다.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빗물 활용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물순환을 향상하는 사업들도 추진돼 지난해 말 기준 물순환 면적이 66%에 달했다.

이 밖에도 1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며 민간에 확산되도록 권장하고,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와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생활특례시 안정적 도시를 짓다
수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60%를 웃돌고, 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중 25%가 30년 이상의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단지이다. 즉 원도심의 노후화로 인해 정비사업 수요가 많아 공공의 역할도 강조된다. 수원시는 지난 1년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구운1구역 등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강화와 9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했다.

◇도시 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사업도 경기도청주변,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등 4곳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성능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집수리도 올해 내로 800여호 가량 지원한다.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새빛청년존'은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성과로 꼽힌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새빛청년존은 수원시청역 근처에 83호가 공급돼 수원 청년들이 시세의 절반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에 세어하우스CON이 총 4호 마련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생활특례시의 안전이 품격을 높인다
생활 안전은 도시의 품격에 주요한 요소가 됐다. 수원시는 범죄와 감염병 등 다변화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를 적용한 안심귀갓길이 지난해 말까지 10곳 조성됐다. 올해는 3곳이 추가될 예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심귀갓길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범죄취약지역 CCTV는 지난 1년간 106개소 492대가 신규 설치되고, 164개소 594대의 성능이 개선됐다.

언제든 우리의 일상을 다시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춘 점 역시 안전 분야의 성과다. 수원시는 집단 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감염병관리과를 지난 해 10월31일 신설했다. 보건소별로 역할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방역대책반과 비상방역대책본부 등을 운영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시스템을 갖췄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온 힘을 쏟았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형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더 많은 기회) 민선8기 도 공약사항 및 시군 정책사업 집적화로 효과 극대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대상지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11곳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참가한 19개 시·군 24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현장실사·대면 평가를 실시했으며, 21일 발표평가를 통해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11개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 11곳은 ▲(기반 구축)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의정부시 흥선동, 하남시 덕풍동, 광명시 소하동, 의왕시 부곡동, 동두천시 보산동, 연천군 신서면 ▲(사업추진) 부천시 오정구 원동동, 평택시 서정동, 여주시 하동 ▲(지속운영)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등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가 매년 100곳에서 30곳 내외로 대폭 축소되면서 원도심 쇠퇴지역 주민들의 삶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 정부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과 시군 정책사업을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미니테아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천하고, 안

경기도, '고양일산테크노밸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도, 정부가 계획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준비

경기도가 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 역할을 맡을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한다. 정부 공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어 바이오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다.

도는 지난 5월 열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준비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런 구성속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분야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 및 자족 활성화를 위해 공업 물량 10만㎡를 배정받았지만, 감정평가와 경영인합을 통해 용지를 공급하도록 한 현 제도가 우수기업 유치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를 포함시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도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참여를 위해 선도기업 유치 및 특화단지 지정 신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양시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용인특례시, '제3기 민관협치위원회' 출범

22명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향후 활동 방안 논의

용인특례시가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안 등을 심의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제3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3기 민관협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위촉된 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향후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협치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시견을 갖춘 단체, 기관 및 대학 등 추천자 13명과 시민 3명, 시장 추천 5명, 시의회 추천 2명, 당원직 6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생활밀착형 주요 정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며 "민관협치위원회는 시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관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석중 한국외대 총괄지원팀 부장, 부위원장으로 송주현



무용협회 교수를 선출했다.

김석중 공동위원장은 "시민의 시각에서 위원들은 각자가 맡은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고 협치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행복도를 높여겠다"며 "노부시계 발전하는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어울리는 민관협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행사-전시·교육 등 문화 놀이터로, 부천시 오정구 원동동은 원동시장 내 중정을 활용한 행사-축제 등 사람이 찾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22개 시·군의 31곳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미시정된 사업은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으며, 9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서 열린 '민생현장 맞손 토크'에서도 원도심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에 걸맞은 도시재생 기회 부여로 원도심 쇠퇴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한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안산시 최초 공공도서관 관산도서관, 개관 30주년 맞아... 내달 29일 기념행사

안산시는 관산도서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내달 29일 강연,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특별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1993년 개관한 관산도서관은 안산시 최초 공공도서관이자 전국 최초 한옥 어린이자료실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개관 30주년 행사에는 매년 6월에 진행한 '전통과 다문화 책 잔치'와 병행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로 마련된다.

행사내용은 ▲기념전시(사진전, 영상회, 도서전) ▲기념특강(역사강사 최태성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기념공연(벌룬 퍼포먼스)으로 개관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서관의 발전취와 추억을 함께 공유한다.

또한 체험행사로 ▲한지 및 한과과정 만들기 ▲부채에 가운뎃기 ▲전통놀이(거중기, 디딤방아, 투호) ▲세계문화스토리텔링(몽골, 필리핀) ▲세계역기체험 ▲세계랜드마크 3D펜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최정부/기자

관산도서관 개관 30주년 특별행사

기념전시(10:00-17:00) 영상회, 사진전, 도서전
기념특강(10:00-11:00) 역사강사 최태성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기념공연(16:00-17:00) 벌룬 퍼포먼스

행방행사(12:00-15:00)
▶벌룬 퍼포먼스: 송바람 30주년 기념공연
▶영상회: 한지 전통공예(한지, 투호, 거중기, 디딤방아)
▶세계역기체험: 몽골, 필리핀 역기
▶세계 랜드마크 3D펜아트: 세계 각국 랜드마크

2023. 07. 29.(토)
10:00-17:00

관. 31동 421호 관산도서관(031-780-3434) 안내

경주시, 국가산단 성공조성 위해 경북도·국토부 등과 상생협력 MOU 체결

경주시, 경북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 현안회의 개최



▲경북권 신규 국가산단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MOU 체결을 위한 현안회의가 열렸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철우 도지사 등 7개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조속한 신규 국가산단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주시는 26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국토교통부와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 및 지역발전 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원희룡 장관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실·국장, 이철우 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국가산단 시행자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주시를 포함한 7개 기관은 경북권 신규 국가산단단지(△경주 SMR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 수소)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신규 국가산단단지의 성공적 조성

토교통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상호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7개 기관의 협력분야는 △재정투자, 사업추진 여건개선, 재무부담 경감 및 수요 확보 등을 위한 협력 △사업참여 방안, 타당성 검토 등 제반사항 협의 △시설유형의 구성 및 운영 △기초업무협약 체결 추진 등이다.

이밖에도 국토부의 국가산단 조성 지원 계획 발표와 LH의 경북권 국가산단 조성 추진계획 발표 및 시·군별 국토교통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특히 경주시는 지역현안으로 울산~경주~포항을 연결하는 산업도로인 외동~울산 시계간 국도 6차로 확장을 건의했다.

길이 1.5km에 1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산업물동량이 많아 경주시의 대표적 병목구간으로 손꼽히는 국도 7호선에도 소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가진 국토교통 현안을 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

관게 직접 건의하고 신규 국가산단단지 조기에 조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업무 협력이 첨단 국가산단인 SMR 국가산단단지 조성의 마중물이 되어 차세대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3월 SMR 국가산단 단지가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4월말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태용/기자

국토부-대구광역시-LH-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제2국가산단) 성공 추진 협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6일 대구 산격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준 LH 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제2국가산단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현 정부 1호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산단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진행했다.

대구광역시는 제2국가산단이 교통, 도심과의 접근성 우수해 기업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되면 항공물류까지 가능한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만큼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금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한 신속한 예비 타진 등 각종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국토부와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공항이 3,800m급 글로벌공항으로 건설되도록 국토부 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기부대양어 사업으로 추진되는 군공항건설과 후적지개발에 LH가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력 체결 후 대구광역시는 지역대표기업인 (주)엘엔에프(대표 최수안), 경창산업(주)(대표 강기봉), 에스엘(주)(대표 김한영)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2국가산단의 기업입주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제2국가산단)을 신공항과 연계하여 대구미래50년을 이끌 글로벌 산업거점으로 만들겠다"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산단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달서구, 달서선사관 명사특강 진행

대구 달서구는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달서선사관(조암로129) 3층 대강당에서 '제1회 달서선사관 명사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달서선사관 명사특강'은 고고학·인류학·역사학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분야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지역주민들에게 특강을 제공해 각 학문과 문화유산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됐다.

제1회 달서선사관 명사특강 강사로 이상희 교수를 초빙했다. 이상희 교수(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캠퍼스 교수)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마친 한국인 최초의 고인류학 박사로서 세계의 발굴현장을 누비며, 고인류학 연구를 연구하는 연구자다. 주요 저서로는 2016년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인류의 기원' 등이 있다.

명사특강 교육은 달서구민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강의실 입장 선착순 100명으로 진행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선사관이 생기고 처음 갖는 주민 대상의 특강으로 쉽게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왔다. 이번 강연으로 달서구가 대구 역사의 중심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제1회 달서선사관 명사특강

인류의 기원

2023. 7. 1. (토) 15:00

달서선사관 3층 대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29)

강사 소개

- 고인류학자, 인류의 기원 저자
- JTBC <이노는블라스> 출연
- EBS <다큐프라임-사려전 인류> 출연

주최 주관 달서구청

경북도, 이제는 'K-방산'으로 해외시장 개척 이끈다

이철우 지사, 호주에서 현지 진출 기업 등과 교류 확대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 대표단은 22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현지 진출 기업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현장계약 체결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철우 지사와 대표단은 먼저 호주 진출 지역기업인 지에스월드(GS World)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신규 협력과제 발굴과 해외인턴 상호교류 확대 방안 등에 논의했다.

지에스월드는 경북 청도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호주 루핑(지붕재) 업계에서 기술 및 디자인, 설치 시공 분야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서정배 대표이사는 그동안 경북도 청년인력을 해외인턴으로 고용함과 동시에 경북도 해외자문위원으로 20년 이상 활동해 왔고, 경북해외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경북도 수출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호주 양모 수출센터(AWEX)는 1993년 설립된 이후 호주에서 생산된 양모의 국내외 판매 및 수출지원을 전담하며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 마케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마크 그레이브 양모 수출센터 대표는 "호주 양모산업의 공정 및 효율적 정보 기반 거래를 통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패션, 섬유 및 의류산업의 기후 변화 대



응,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경북도와 관련 분야의 상호협력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상호교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경산 소재 정밀주조품 생산업체인 현우정밀(대표이사 배영일)의 호주 현지 거래처인 W&E Platt Pty Ltd. 본사를 방문해 현지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계약 체결행사를 가졌다.

아울러 기업 간 수출인 교류확대와 상호 인적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경북의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W&E Platt Pty Ltd는 1980년 설립되어 호주 국방부에서 승인한 방산업체로 군용 차량 및 해군 함정용 무기 마운트 설계, 제조,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40여 개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소형무기업체(HECKLER & KOCH GMBH), 미국 소형무기업체(ILLON AERO INC) 및 브라질 무기업체(CONDOR NON LETHAL

TECHNOLOGIES)의 호주 유통업체로 성장해 왔다.

한국 협력사인 현우정밀은 현재 총기류, 미사일부품, 장갑차 마운트, 선박부품 등 정밀주조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루마니아, 중동, 호주 등 여러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경북의 K-방산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이날 박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무역관장,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경북도 수출지원 협력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 방산 수출은 2022년 기준 3억 달러로 전국 2위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구미 방산클러스터를 비롯해 도내 강한 방산기업을 발굴, 육성해 새로운 수출효과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 UP, '대구어린이세상' 리모델링 개관

대구광역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대구 어린이세상(구.어린이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함에 따라 6월 26일 오후 3시, 대구어린이세상 피코리극장 및 꿈누리관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6월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1983년도에 건립된 구.어린이회관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어린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전시콘텐츠가 낙후돼 어린이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시비 345억 원을 투입해 꿈누리관 및 피코리극장 리모델링하고 야외공간 조성하여 기존 전시 위주의 노후시설을 체험형 가족 놀이·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꿈누리관은 1층에 포토존, 섬유놀이터,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2층은 대구를 주제로 자연과 사회를 테마로 한 체험공간으로, 3층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공

간으로 조성했다. 피코리극장은 노후 설비와 객석을 전면 교체하고, 북카페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통해 복합휴식 공간으로서 활용도 높은 공연장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야외 휴게공간에는 자연 지형을 활용한 숲속 놀이터와 바닥수 등 각종 체험형 놀이시설을 설치해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2년 11월, 계명문화대학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어린이세상'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해 개관한다.

시민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가족 문화취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꿈누리관의 입장료를 4,000원으로 책정했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 인원을 일일당 4회로 구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어린이세상 이용 희망자는 6월 27일(화)부터 7월 5일(수)까지는 선착순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7월 6일(목) 이후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dcw.daegu.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어린이세상"이 대구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어린이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대구어린이세상'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개발하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소중한 특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모이GO! 함께나누GO! GO! GO! 플리마켓 성료



부산 동래구는 지난 6월 23일 수민어울 공원에서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확산시킨 '함께모이GO! 함께나누GO! GO! GO! 플리마켓'을 수민어울공원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동래구청, 동래구 4대 분과 어린이집, 3천여 명의 가정양육 부모·자녀가 참여한 가운데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일상 실천과 함께 놀이와 연결하며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성 있는 체험 놀이가

이뤄졌다. 이날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다자녀, 다문화 가정에 후원할 예정이다.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성혜진 센터장은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배움의 순간이 이루어지며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연을 생각하고 탐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루어진다. 오늘 행사가 지역 주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한 놀이 체험의 날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활짝핀 코스모스 꽃밭 인기 만점



영양군 수비면 밤하늘보호공원 일원 22,000㎡에 만개한 코스모스가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생태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영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꽃에서 가득한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특색있는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결로 물든 벼들이마련초도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해 한층 더 아름다움을 더해가고 있다.

한편 코스모스 꽃밭 주변에는 보랏빛 물

영덕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점검 시행



영덕군 김동희 부군수는 여름철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일 영덕읍 오십천, 지품면 오천솔밭, 달산면 무지개숲, 옥계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김 부군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근무 실태 등을 확인하고, 호우 시 피서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는 자동 우량 경보시설을 살폈다.

김 부군수는 점검 결과 미비점은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들에게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수시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영덕군은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물놀이 관리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 5월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사)대한구조협회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구조장비 운용법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 교육 위주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영덕군의 물놀이 관리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8월 31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같은 기간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장문화/기자

경북도서관 '서가풍경(序家風景) 사진展' 개최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서원 등 사진에 담긴 한국의 美 소개



경북도서관은 고택, 서원, 종가 등 우리 옛 전통문화를 사진에 담아 온 이동춘 작가 사진展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북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 '서가풍경(序家風景)'에서는 학문연구를 위한 조선시대 사설교육기관인 유네스코에 등재된 9곳의 서원, 도서관인 규장각, 효령세자의 독서실 기능을 한 기요현과 선향재, 한옥 서고 등 문경향지에 인화한 사진 54점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루브르 박물관 복원지인 문경향지를 특별히 맞춤형 제작해 우리 한옥 풍경과 조화를 이루게 했다.

작가가 엄선한 사진 중 국보 328호인 윤장대는 책장의 일종으로 불교에서 경전을 넣은 책장이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아름다운 꽃무늬 창과 정교한 빛살무늬 창살을 통해 옛 선인들의 섬세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문인의 서재에서는 천재적인 작품을 쓴 천재 소설가 이어령, 김주영의 서재도 볼 수 있다.

이동춘 작가는 독일 베를린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 미국 UCLA와 버클리대학에서 '선비정신과 예를 간직한 집, 중



가사진을 통해 우리문화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리는 작가로 유명하다.

경북도서관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기획 전시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업 전시로 연간 10여회의 전시를 개최한다.

권경수 경북도서관장은 "도서관은 더 이상 독서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앞으로도 경북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해 도민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매화면에서 출발!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 매화면 어울린공간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행사를 진행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IBK기업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지원하며 매월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34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른 아침부터 급식을 준비하고 매화면 갈매리, 기양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울진군은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무료 급식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능 나눔, 문화공연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특히,

2023년에는 예년과 달리 권역별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여 더욱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태운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감사하고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사업이 어르신들의 식사 자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간의 소통의 장도 됐다"며 "앞으로 이루어질 권역별 운영이 울진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청송군,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월인천강" 공연

청송군은 오는 6월 29일 저녁 7시 30분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월인천강' 공연을 개최한다.

'월인천강'은 1992년에 창단된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에서 추진하는 제164회 정기연주회 공연으로, 국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부터 마니아 관객까지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관객 모두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에는 경북 도립국악단의 상임 지휘자 박경현, 양금 윤은하, 소리 이광복, 이소연 등이 출연해 사랑가, 월인천강지곡 일부, 양금협주곡 등 다양한 국악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대중들에게 친숙한 명작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하여 영화 속 명장면과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국민가수 '노사연'이 출연해 친숙한 가요인 '바람', '만남', '돌고 돌아가는 길' 등을 국악과 접목시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것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의 질을 높여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경북 클래식 셋별이 반짝이는 대구시향, 제5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지역의 청소년 클래식 유망주와 함께하는 대구시립교향악단 '제5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이 오는 7월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류명우 지휘자가 객원지휘하고, 대구시향의 청소년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아현, 정유진, 박소연, 정윤제, 조유찬, 김승현이 협연한다. 이들은 최근 대구음악협회, 경북음악협회, 부산관악협회 등에서 개최한 국내 유수의 전국학생음악콩쿠르에서 상위에 입상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첫 무대는 이아현(김천예고 1, 더블 베이스)이 드라고네티의 더블 베이스 협주곡 제1악장을 들려준다. 현악기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크고, 저음을 담당하는 더블 베이스의 연주 기교와 음역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어 정유진(경북예고 3, 플루트)은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1번 중 제1악장을 협연한다. 당시 플루트는 불완전한 악기였으나 음악애호가 페르디난트 드 장의 의뢰로 플루트의 특성을 살린 이 협주곡을 만들게 됐다. 플루트의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음색을 들을 수 있다.

박소연(경북예고 3, 오보에)은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제1악장을 연주한다.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에 머물 당시 베르가모 출신의 오보에리스트 주세페 페렐디스를 위해 작곡한 것이다. 이 곡을 플루트 용으로 수정한 작품이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2번이기도 하다. 1악장은 경쾌한 주제가 인상적이며 오보에를 중심으로 한 경쾌한 주제를 지나 당당하게 곡을 마치는 활기찬 악장이다. 정윤제(경북예고 2, 바이올린)는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중 제1악장을 들려준다. 브루흐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곡은 웅장하고 낭만적인 선율이 특징이다. 1악장은 제목 그대로 전곡에서 전주곡(Vorspiel) 역할을 하는 악장으로 팀파니와 목관의 서주부에 이어 독주 바이올린이 서주를 카덴차로 장식한다. 바이올린의 섬세하고 자유분방한 악상이 인상적이다.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제1번의 제1악장을 조유찬(김천예고 1, 호른)의 협연으로 듣는다. 윈헌 궁정관현악단 호른 수석이었던 아버지의 예술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쓴 곡이 바로 이 작품이다. 호른의 팡파르풍 주제가 시작되며, 부드럽고 낭만적인 선율이 일품이다. 마지막 곡은 프랑크 작곡가 에마누엘 세조네의 마림바 협주곡 중 제3악장을 김승현(김천예고 1, 마림바)이 연주한다. 마림바의 맑고 투명한 울림을 현악 오케스트라와의 앙상블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클래식 음악 전공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와의 협업 기회와 무대 경험을 제공한 대구시향 '청소년 협주곡의 밤'에서는 다양한 독주 악기의 특색을 살린 협주곡의 주요 악장을 누구나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와 대구시향 사무실을 통해 1인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취소는 공연 전일 오후 5시까지며,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울릉지대 25주년 & 독도지대 18주년 기념식 행사



작은 사랑의 봉사활동으로 어렵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기여하고자 1986년에 설립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울릉지대 25주년, 독도지대 18주년을 기념하여 울릉군에서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대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념식을 울릉군에서 개최했다.

26일 기념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회위원장, 김동혁 울릉경찰서장, 손삼호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장 등 내외귀빈과 교통봉사대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교통봉사대 모범대원에게 울릉군수, 울릉군의회위원장, 울릉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제105차 교통사고 없는 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사랑실천의 행보를 이어갔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고태권 울릉지대장은 "대한민국 최동단인 울릉에서 이번 행사를 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으며, 남한권 울릉군수는 "살기 좋은 울릉을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현중, 조강재/기자

예천군, 제2회 쓰담달리기 보물찾기대회 열기 '후끈'

쓰레기 줍Go~ 보물도 찾Go~ 주민들 큰 호응

예천군은 24일 경북도청 신도시 송평천공원에서 '제2회 쓰담달리기 보물찾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클린예천 만들기 캠페인'과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주말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준비된 재활용품 업사이클 체험, 즉석사진 이벤트,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대회 시작 후에는 송평천공원 대외코스 곳곳을 누비며 숨겨진 보물스티커가 붙은 쓰레기 찾기에 열을 올렸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더운 날씨에



보물 쓰레기를 찾은 참가자들과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거해온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했으며 그 외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홍보 물품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더운 날씨에

도 쓰담달리기 보물찾기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군민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귀농인 모여드는 의성, "3년 연속 전국 1위"차지

체계적인 귀농 프로그램, 다양한 도시민 유입 정책 한 몫

의성군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3년 연속 귀농 가구 수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해마다 시군별 귀농인 규모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는데, 의성군은 2020~2021년에 이어 2022년 통계조사 결과 213가구를 유치해 3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라 귀농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귀농 1번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는 의성군이 비옥한 화산 토질,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로 다양한 양질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 조건과 더불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 도시민 유치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귀농인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 체험마을과 귀농인의 집을 운영 중이며, 영농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영농기술이 부족한 초보 귀농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1대 1 멘토멘티, 영농체험 현장 학습, 지역민과 갈등 해소를 위한 용화교

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지속적으로 귀농인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색있는 도시민 유치사업과 더불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자/기자

지역 일자리사령관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자체장 최초”경영자대상 수상

대한경영학회 주관 2023 경영자대상 고용창출 분야 수상

경북도는 대한경영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경영자대상”고용 창출 분야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경영학회는 1988년 설립되어 국내 9천500여명 연구자들이 경영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에 관한 학술연구 진흥과 보급, 교류 등을 목적으로 매년 산업발전과 기업 경영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해 시상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경영자 대상은 지자체장 최초로 수상하면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중앙부처 이외 영역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 취임 이래 경북도는 산업과 노동 전환 시대에 대비해 지역 경쟁력과 고용 성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인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 및 자체 사업과 연계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경북도 취업자 수는 146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2천명(3.7%) 증가했고, 고

용률은 62.9%로 1.9%p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뚜렷한 고용 창출로 나타났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매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경북도 일자리 정책이 민간영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상식에 참여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가 곧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며, “민간 영역에서도 인정받은 경북도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년 청년농업인 대상 경영 마케팅 교육 실시

영양군은 6월 2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경영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경영 마케팅 교육은 청년 창업농 12명을 대상으로 최화섭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경영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경영개선 노트작성, 자료 분석요령, 마케팅 케이스스터디 등을 통해 농업소득을 증가에 집중하여 교육했다.

또한 영양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고급 상품개발과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 판매에 대해 교육했으며, 1인 가족화, 소포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판매 전략을 소개하여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경영마케팅 교육은 전문가가 청년창업농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진단을 하고 현재 상황을 함께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농산물 판매가 마무리되면 소득분석을 통해 농업경영 능력에 대해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윤철 소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영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원희룡 장관, 안동 국가산단 성공 추진 위해 권기창 시장과 맞손

국토교통부, 경북도, 안동시, 경주시, 울진군, LH, 경북개발공사 참여

경북 도내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울진군이 상생협력의 맞손을 잡았다.

26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산단 성공조성 및 지역발전 현안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신규 국가산단 3개 지역 지자체장인 권기창 안동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국가산단 시행자인 이한준 LH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발전 관련 현안회의를 가지고 신규 국가산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국토교통부(김정희 국토정책관)에서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사인 LH(박동선 본부장)가 경북 국가산단의 구체적인 조성 로드맵을 브리핑했다.

이어,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국가산단 조성 지자체를 비롯한 경북도 발전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 북구미 IC-군위JC 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음내JC-군위JC)확장, ▲ 대구경북신공항 의성방면 진입도로 개설, 영일만 횡단간 고속도로(포항-영덕), ▲ 외동-울산 시계 간 국도 7호선 확장, 안동-도청 국지도79호선 건설, ▲ 영덕-울진-삼척 간 고속도로(남북 10축)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SOC사업과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국토부에서는 경북도의 현안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산단의 성공조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하며 국가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1세기 들어 안동의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경북도청 유치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라며 “경북도청 이전의 궁극적 목적인 경북성장거점도시 육성이라는 꿈이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단지 유치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중심의 시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최대 속력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장래 항공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국가산단의 성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며 신속한 후속조치로 2025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지역이 미래 유망 산업인 바이오 생명, 원자력 수소, SMR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짙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원력의 자세로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고, 범정부 기업유치를 통해 경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장에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봉화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석표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세외수입 관리부서인 15개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체징리 기간 운영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징수대책 등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봉화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이월액을 포함해 총 12억 원으로 주요 체납 원인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89%를 차지하고 있다.

봉화군은 올해 정리목표액인 1억 8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징수에 나서며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하고, 이후 소멸시효기간 완성 시까지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홍석표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부재 원으로 전 부서는 체납액 독촉 및 압류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3,4호기 부지정지공사 착수

- 부지정지공사 착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터 다지기를 개시하는 것
- 황주호 사장, “안전 최우선 공사 추진하고, 보조기기 발주 및 주설비공사 계약 신속 진행, 원전 생태계 조속 정상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지난 26일, 신한울3,4호기 건설 현장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자리한 가운데 부지정지공사 착수식을 개최했다.

부지정지는 본격 건설에 앞서 터를 다지는 것으로,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부지정지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2017년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3,4호기는 지난해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재개가 결정됐다. 이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지난 3월 주기기 계약을 체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한울3,4호기 건설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보조기기 발주 및 주설비공사 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원전 생태계 조속 정상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3,4호기는 현재 건설허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사가 완료된 이후 규제기관으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원자로 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굴착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재)문경시장학회, 빛나는 미래를 위한 장학금 기탁



(재)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6월 23일(금) 주식회사 경일에서 장학금 1,000만원, 문경도자기협동조합에서 500만원, 경상북도무형문화재 김선식 사기장이 500만원을 기탁했다.

주식회사 경일 조시형 대표이사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문경시의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문경도자기협동조합 김선식 이사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의 의무이고 그런 목표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장학금은 첫사랑 축제 기간 중 진행된 생활자기, 명품도자기 경매에서 문경도자기협동조합 소속 도예인들의 작품 120여 점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과 김선식 사기장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재)문경시장학회 신현국 이사장은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문경시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며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6개 기관 힘 합쳐 마약 근절에 앞장서



구미시는 26일 구미역과 구미중앙새마을시장에서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검찰청 자문에 따르면, 전국에서 올해 1~4월 동안 10.20대 마약사범 2,035명이 적발됐다.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것으로 총 마약사범 증가율(29.7%)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상황에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구미약사회, 구미경찰서, 구미교육지원청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기관별 마약 근절 퍼포먼스

와 합동 거리 행진을 비롯, 마약 관련 OX 퀴즈, 마약 퇴치 포스터 전시, 홍보 물품을 배부해 지역주민에게 마약류 폐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높였다. 아울러, 시는 초·중학교 5개교, 84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마약류 진통제(펜타닐) 취급 병의원을 기획점검 하는 등 불법 마약류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현주 구미보건소장은 "마약 없는 건강한 구미시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마약류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경남도지사, 글로벌 투자유치 전초기지로 해외사무소 재편 주문

신입생 충원을 전국 최저...신입생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대안 마련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6일 오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출장을 마치고 열린 첫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우주경제비전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도정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방정부와 경쟁하기 위해 경남의 경쟁력과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외국에 앞서는 자치단체들과 경쟁하고 배울 것은 배워 글로벌 도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페인 바스크 지방정부는 투자청에서 해외에 지사들을 상주시키고 있다"며 "창업과 투자유치 분야에 모든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행정의 전초기지로 경남의 6개 해외사무소를 개편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파리 항공우주산업전에 참석해 항공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주산업 집적지에 툴루즈 우주센터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사전 우주항공청과 여건이



유사하며 우주관련기관, 산업-인력을 집적화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주항공특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우주경제비전으로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 우주항공특특별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에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민간 주도의 창업타운으로 조성된 파리 스테이션F는 페지된 역사를 이용해 창업타운을 만들어 3,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있고, 17개의 유니콘 기

업을 탄생시켰다"며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 분야의 창업타운을 동부권에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경남의 신입생 충원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며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미흡했고, 신입생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업의 질 개선 등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도내 대학들과 협업체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상국립대와 인제대가 글로벌대학으로 예비지정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도청과 대학, 유관기관과의 협업체를 활성화

하고, 오는 10월에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남해안 관광개발에 대해 부산, 전남과 합동으로 남해안 투자유치 설명회를 정례화시키는 한편, 낙동강 조류경보에 대해 환경부와 종합대책 마련과 국가녹조대응센터 예산 반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선정 이후에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고 예산이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모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고려돼야 하는데 연도별로 평가해서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도지사는 최근 독일과 일본의 수출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산업을 올리기 위해 장려금 지급 등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단란하고 모범적인 가정 발굴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족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하며,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방지, 지하차수벽 설치, 공사현장 관리를 비롯해 유원지 안전대책도 꼼꼼히 챙겨줄 것을 지시했다. 장재현기자

대구형 서비스로봇 개발·제작에 기업 관심 집중!

서비스로봇 완제품 개발·제작사업 3:1 경쟁률, 8개 컨소시엄 선정

대구광역시시는 '서비스로봇산업 육성 사업(사업명: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서비스로봇 완제품 개발·제작 8개 컨소시엄, 실증사업 1개소, 로봇 벤처·스타트업 육성사업 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은 대구광역시의 대표 로봇기업 육성사업으로, 기존 제조로봇 보급 중심에서 올해부터 서비스로봇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 서비스로봇 완제품 개발·제작 ▲ 도심 전역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 로봇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서비스로봇 전주기 지원 사업을 지난 4월 말부터 사업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그 결과, 서비스로봇 완제품 개발·제작 사업 공모에서는 참가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8개 컨소시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선정됐다. 국내·외 서비스로봇 시장 급성장에 따라 서비스로봇 개발·제작에 대한 로봇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그 결과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 선정된 8개 컨소시엄에는 서비스로봇 개발·제작 및 기술개발을 위해 2년간 최대 4억 원 지원 뿐만 아니라 개발·제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외 산·학·연의 전문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애로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도심 전역의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사업으로는 2022년 동대구역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이어 계명대학교 캠퍼스 내 자율주행 실외 순찰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해 생활밀착형 대시민 공공서비스 로봇을 지속 확산하고 로봇도시 대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 국내·외 투자자와 로봇기업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로봇 벤처·스타트업 육성사업에는 9개사가 선정돼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내 투자유치 데모데이, 대구국제로봇산업전 공동관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참가기업 중 우수 스타트업 6개사를 선정해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콘퍼런스 참가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은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로봇가치사슬 확장사업을 제조로봇 보급사업에서 서비스로봇 산업 육성으로 전격 전환 추진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었으나 로봇 기업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로봇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북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우수 선정

대구시 북구가 보건복지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대구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계획수립을 통해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북구는 이번 8기 계획에서 구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행복 북구라는 비전 아래 총 3개의 정책전략(연계·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강화, @축출한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강화, @위גיע을 및 공공의료체계강화)를 선정하고 19

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4년간 보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에 대비해 지역보건의료체계, 자원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효과적 인 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를 계획·수립했으며,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여 건강형평성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부산시, "부산의 바다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365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한층 까다롭고 촘촘한 방사를 검사 등을 통한 수산물 먹거리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터널 설비를 시험 운전하고 있으며, 오늘(26일) 또는 27일 이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른 것이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대책본부'를 지난 2월부터 확대 개편하고 시민과 수산업계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전 직원이 합심해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해수 방사능 측정 지정 확대 ▲ 수산물 검사 건수 상향 및 심층분석으로 안전성 확보강화 ▲ 해수와 식품 방사능 측정결과 투명 공개 ▲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식회 등 추진 ▲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범위 확대 ▲ 검사 주기를 단축할 장비·인력 확충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 수산물 생산자 실무협의회 구성 구체적으로, 시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증대로 수산물 소비는 감소하고 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어업인들의 생계 위기감 고조가 예상됨에 따라 어업인 동향파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수산물 생산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부산시, 7개 수협, 해조류 및 양식 관련 단체, 어촌계장협의회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 전후 단계별로 어업인들의 출어 동향 및 수산물 산지가격 추이 등을 공유하고 어업인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 정부와

연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가 초청 대시민 토론회 개최 또한, 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사)부산수산업정책포럼 주관으로 '우리바다, 우리식탁 안전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대시민 토론회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백스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원자력, 수산, 해양, 언론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으로 매일 시식회(2회)를 겸한 직거래장터(3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26일) 10시에는 어업인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를 초청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및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을 자문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주관으로 시행되는 각종 판매행사에도 지역특화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계 추진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유통 단계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시는 시민들이 건강과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생산), 유통 단계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연구 검사기관, 구(군)과 협업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상 어업인 및 수산물권 중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 이력관리 등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수입 단계에서는 각 건 별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며, 생산 단계에서는 위판장과 양식장 등에서 시료를 수거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부산시를 포함한 7개 기관에서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 결과를 언제, 어디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누리집에도 이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 해소를 위해 어업인 및 유통 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수산업계의 의도와 요구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고 있다. 또한, 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4,000→8,000건) 시행하며,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 운영과 누구나 방사능 검사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전하고 청정한 부산 수산물 공급을 시정의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없도록 최고 수준의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부산시와 정부를 믿고 수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중진기자

경북도, 막힘없는 빛물받이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

경북도는 26일 시군 하수도 담당소장(과장)을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빛물이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빠르게 빠져나가야 배수 불능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로의 통수능력 부족이나 높아진 하천 수위의 영향으로 인한 배수 불능은 도시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빛물받이를 막힘없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군별 빛물받이 점검 및 청소 실적,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고, 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의 사례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 빛물받이 점검과 청소·준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빛물받이 관리 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막힘없는 빛물받이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해 쓰레기 버리지 않기 △덮개 놓지 않기 △쓰레기 등을 실전 하도록 집중 홍보해 도시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기원 경북도 맑은물정책과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빛물받이 관리를 철저하게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막힘없는 빛물받이 만들기"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개최



남해군은 지난 6월 25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 및 보존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했다. 남해군이 주최하고 6.25참전유공자회 남해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6.25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보존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7개 수협, 해조류 및 양식 관련 단체, 어촌계장협의회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 전후 단계별로 어업인들의 출어 동향 및 수산물 산지가격 추이 등을 공유하고 어업인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 정부와

미국장은 한국전쟁의 의미를 널리 알린 공이 인정되어 6.25참전유공자회 남해군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6.25참전유공자회 최준환 지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거나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쟁취한 값진 결과"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철한 호국정신을 다짐하자"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기념사에서 "78년 전 전쟁의 참상은 잊혀져 가지만, 이 땅

이용준기자

전남도-CJ푸드빌, 완도전복활용 외식 메뉴 첫 출시



리조또 등 3종 이어 뽕스·제일제면소도 신메뉴 추가 예정

전라남도는 우수한 전남 수산물 판매촉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손잡은 CJ푸드빌이 완도산 전복을 활용한 전복 리조또, 전복 바질 페스토 파스타 등 신메뉴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아인 비스트로 '더플레이스'를 통해 선보이는 신메뉴는 지난달 22일 전남도, 완도군과 CJ푸드빌이 '전남 농수산물을 활용한 외식상품 개발·홍보' 업무협약을 한데 따른 것으로 최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어가를 돕고자 추진한 첫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번에 출시된 더플레이스 3종 메뉴는 전복살과 전복소스로 감칠맛을 살린 '전

복 리조또',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전복 씨푸드 샐러드', 바질 페스토의 풍미가 어우러진 '전복 바질 페스토 파스타'다. 한식에 사용되는 전복을 이탈리아인 메뉴에 접목해 남녀노소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독창적인 맛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시된 메뉴는 두 가지 세트 메뉴로 구성해 25% 할인가로 판매되고, 신메뉴 출시이벤트로 더플레이스 카카오톡플러스채널에서 5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7월엔 '뽕스', '제일제면소'에서 전복을 활용한 스테이크, 면요리 메뉴도 출시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뽕스'가 만든 전복

스테이크, 파스타를 더욱 쉽게 맛보는 레스토랑 간편식(RMR) 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복을 이용한 신메뉴 개발·출시는 최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전복양식 어가의 판로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전남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외식 메뉴와 간편식 개발 등 소비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은 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한복, 뚜레쥬르 등 국내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식품화 기업이다.

박종배/기자

남원시, 중견기업 응진식품(주) 투자유치 결정 220억원, 40명 고용의 투자유치로 남원시 경제 활성화 기여



남원시는 26일 응진식품(주)와 추진면에 생수 공장 투자유치를 결정했다.

응진식품은 관내 생수 공장인 (주)더조은 위터를 인수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액 220억 원을 투자하고, 4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 투자 시설의 생산 가동율이 100%에 근접하는 시기에는 추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2차 투자를 중장기 계획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진식품은 세계 최초의 쌀 음료 '아침햇살'과 보리차를 용기에 담아낸 '하늘보리' 등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음료 브

랜드를 선보이며 국내 음료시장에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 온 기업이다.

이번 남원시 투자는 지리산과 백두대간에 위치한 청정 남원을 기반으로 '맛있는 제품과 새로운 경험으로 행복한 식문화'를 선도하는 '종합식품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된다.

최경식 시장은 "고급리 및 경기불황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에 감사드리며, 깨끗하고 맑은 지리산수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영광군, 여름철 기상이변 농작업 사고사례 알아두기

영광군은 여름철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농업인이 상해(傷害)를 입거나 농기계 손실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작업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사고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농업인 인명피해'와 '농업시설 재물피해'가 있다.

첫 번째 인명피해 사례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논 물고 둘러보러 나갔을 때 '논 두렁 넘어짐, 급물살 휩쓸림, 실종·의사사고, 낙뢰사건' 등이 있으며, 가뭄 시 양수작업 과정의 '고무벨트 손가락 끼임사고, 전기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되며, 폭염 시 열사병과 일사병, 탈수증상 등의 '열연질환자 발생'을 쉽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농업시설 재물피해 사례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농기계 침수로 엔진고장, 차체 부식발생 등이 있으며, 농기계보관창고 침수로 농기자재를 못 쓰는 상황이 발생된다. 태풍 발생 시에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심각하며, 폭염 시에는 농기계 변색과 변형, 타이어 갈라짐 현상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물손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기예보에 귀 기울여 날씨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을 시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작업에는 '나홀로 작업'이 아닌 두 명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자는 충분한 휴식·건강체크·안전장비 착용·작업 위치알리기 등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자 소장은 "여름철 기상이변에 따른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지만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준비하여 대비한다면 추후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인적·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고 전했다.

박원규/기자



이상의 함평군수, 민선 8기 1주년 맞아 "현장 중심 소통행정 펼쳐"

이상의 함평군수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친다.

함평군은 "이상의 군수가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군수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제일 먼저 함평을 내고리와 기각리 등 상습 침수 지역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에 나섰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잇달았던 곳으로, 군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빗물 펌프장 등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재해에 대비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부서별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군수는 오는 29일까지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원규/기자

이상의 군수는 "앞으로 민선 8기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6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함평 발전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체험·서비스형 답례품 확대

무안군은 지난 26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품 17개 품목, 14개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당초 11종 18품목의 답례품을 선정했고, 올해 2월 기부자가 무안군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군 대표 관광지인 화산백련지와 황토갯벌랜드 숙박권을 추가했다.

그러나 기존 답례품은 무안군 농수축특산물 위주의 소비형 답례품으로 특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기부자의 재기부를 이끌어 내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추가 공모를 실시했다.

추가로 선정된 답례 품목은 ▲농축수산물(레드비트즙, 천일염) ▲가공식품(발효식초, 과일즙·젤리, 장류 세트, 고구마말랭이, 양파 짬뽕, 떡국 세트, 수제 소시지) ▲공산품(뫼난이미술관 아트상품) ▲관광·서비스(향토음식체험, 관광할인권, 별초대행서비스, 화재안전꾸러미, 주말농장체험, 부모님생신상 차려드

리기, 치유의 숲 체험)로, 이 중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여 호응을 얻고 있는 '별초대행서비스'와 '화재안전꾸러미'를 포함하여 '주말농장체험', '부모님 생신상 차려드기'는 주요 답례품이 될 전망이다.

주말농장체험은 인근 광주·목포 등 도시 지역의 기부자에게 4평 크기의 농장을 일 년간 분양하고 농장에 심은 작물을 가꾸기 위해 기부자가 무안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어 무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우는 매개체가 되고 새로운 관계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리는 고향을 떠난 자녀들이 직접 부모님 생신을 챙기기 힘든 경우 이를 대신해 무안군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미국과 생선, 과일, 나물 등으로 구성된 생신상을 차려 자녀들을 대신해 축하해 드리는 답례품으로 고향을 위한 기부가 내 부모님을 위한 혜택으로 연결됨으로써 향우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안에서 생산되는 연, 낙지, 양파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향토 음식을 만드는 체험, 숙박시설과 황

토맨발걷기 체험을 결합한 관광할인권, 올해 개장한 무안 치유의 숲 체험권 등 무안군만의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지역을 방문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며 뫼난이캐릭터로 유명한 김판삼 조각가의 아트상품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답례품으로 추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부자의 관심을 끌어 기부를 촉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는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닌 기부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경험을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안군으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부자가 만족하는 우수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7월 중에 답례품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에 답례품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정현/기자

완도군,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 '최고상' 수상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도시 정책 '해양치유' 높이 평가받아



전남 완도군이 지난 6월 24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2023 국제 슬로시티 연맹 총회'의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 (Chiocciola Orange 2023)'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렌지 달팽이 상'은 국제 슬로시티연맹 33개국 288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최고상이다.

완도군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정책' 부문에 완도의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정책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완도군의 지역 특화 산업인 '해양치유'는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 관광 발전 등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해양치유'란 깨끗한 해양환경 속에서 해양기후와 해풍, 바다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국민 건강을 선도하는 물론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해양치유를 역

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군은 청정한 대기질, 깨끗한 바닷물, 다양한 해양생물 생산 등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2017년에는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노르딕워킹과 해변 명상, 필라테스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16개의 치유 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기후치유, 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이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슬로시티 완도의 해양치유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2007년도에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됐으며, 2018년도에 세 번째 인증을 받으며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양영울/기자

전라남도-장흥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성황리 개최

장흥군은 지난 25일 군민회관에서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향군인회 장흥군지회가 주관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전라남도 문금주 행정부지사, 김성 장흥군수,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각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군악대 연주와 군가 제창을 시작으로 영웅의 제복 입혀주기,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 극예술 창작집단 흥과 어량어랑 예술단 어린이 단원들의 기념공연, 6.25 노래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제복의 영웅들' 제복 입혀주기 퍼포먼스 및 연극 '늪은 군인의 노래' 공연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며 6.25 참전 용사자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



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에 감사드리다"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김제시 미래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 개최

김제시는 6월 27일 오전 7시 지평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김제시 미래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을 개최했다.

경영인 포럼은 김제시 경영인에게 경제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영인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기업 대표, 금융기관 지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 초청 강사인 최백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산업 체제와 일자리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혁신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특강을 했다.

'김제시 미래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은 매 분기 말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대상자는 관내 기업 대표 및 상공회의소소법에 따른 회원 등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포럼이 김제시 경영인 혁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매 분기 말 경제 분야 유명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나주시, 지식천 솔밭공원 알박기 텐트 등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7월 6일부터 상시 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나주시가 남평 지식천 솔밭공원 일대 기승을 부려왔던 '장박 텐트'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에 팔을 걷었다. 나주시는 다음 달 국가하천인 지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 구역은 드들강 솔밭공원에서부터 남평 강변도시 양우내안에 리버시티 2차 아파트 인근까지 약 3km구간이다.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15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5일까지 제도 활동에 나선다.

7월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지구역 지정·고시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야영행위로 인한 경관 훼손, 하천 생태계 오염, 불법 쓰레기 투기, 알박기 텐트 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진했다.

이뿐만 아니라 뜨거운 욕류 기름을 소나무 뿌리에 붓거나 텐트 설치 과정에서 나뭇가지를 훼손하는 비양심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년 소나무 2~3그루가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솔밭공원에는 소나무 200여주가 자생하고 있어 지식천과 어우러져 천혜 생태 경관을 자랑한다.

침수 피해 등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지식천 중류부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가능성이 높고 텐트 부유물로 인해 홍수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 나주시가 지식천 드들강 및 솔밭공원을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7월 6일부터 알박기 텐트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솔밭공원에 장박 중인 텐트

등 현재 공원 여건으로는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나주시는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함께 추후 합법적인 범위에서 천혜 생태 경관을 관광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 유원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송 200여그루가 한데 우거진 천혜 생태자원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금지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전남도, 천혜 자연 활용 '골프 중심지' 도약

인허가 기간 단축·투자 활성화·요금 인하 등 건설 지원계획 수립

전라남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겨울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골프 스포츠 중심지 조성을 위해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수립, 내수 진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 맞춤형 골프장 건설과 실질적 골프 대중화,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인·허가권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골프장 건설 지원 전담조직(T/F) 구성·운영 ▲행정 절차 개선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또 ▲주민·시행자·허가권자 간 협의체 구성 및 상생방안 마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타 지역 방문객 유치에 위한 이용요금 인하 등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전남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은 총 13개소다. 이 중 4개소는 투자자가 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매입을 하고 있으며, 9개소는 도 및 시군에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골프장 건설 지원 전담조직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인 입지 검토부터 컨설팅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 전략을 준비



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투자자·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방지한다. 이밖에 개발 사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신속·정확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골프장 건설 절차와 실무 내용을 담은 업무편람 '함께 만드는 골프장'을 발간해 관계 행정기관 및 투자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골프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6조 원으로 스포츠산업(80조) 중 단일종목 최대인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4.7%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엠지(MZ)세대, 여성 중심의 신규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514개소로 전남에선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

비해 산림 비율이 낮아 골프장 건설에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엠지세대와 여성층을 중심으로 골프 입문자가 늘면서 명실상부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수요 맞춤형 골프장을 조기에 건설해 골프장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각종 전지훈련 및 대회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영광군 방문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및 우호교류 활성화 논의



영광군은 지난 26일 스벤 올링(Svend Oling) 신임 주한 덴마크 대사 일행이 해상풍력 발전 산업 협력 및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영광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담에서는 영광군-덴마크 간 해상풍력 협력 방안 도출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상풍력 선도 기업인 CIP/COP 소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소개와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영광군과 덴마크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며, 영광군이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향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스벤 올링 대사는 “강종만 영광군수님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전을 높게 평가하며,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COP 코리아 이범주 전무는 “COP가 보유한 해상풍력 분야의 풍부한 투자재원과 전문기술이 영광군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적용돼 해상풍력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규기자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본격 착수

전남 동부권까지 포함한 의료환경 분석,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순천시가 26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영상관에서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 병원 및 대학 관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지표를 분석하여 달성 가능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순천시 맞춤형 공공의료 추진전략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 자원 강화 방안,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참여 방안,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보고회에 앞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의과대학 유치, 의대정원 확대만을 기다릴 수 없으며,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때”라고 말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순천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 개선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공공의료정책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준기자

전남도 공예품대전 참여하세요

전라남도는 전통 공예기술을 계승하고 창의적 공예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53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을 오는 7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누리집'에서 7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출품작은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다미담예술구(담양읍 담주4길 24-27 2동)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 대상은 목질,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공예, 6개 분야다. 전통 공예 기술과 조형성 등을 갖추고 현대적 흐름에 부합하면 출품이 가능하다. 다만 상품화가 곤란한 작품 등은 제한된다.

출품 기준은 1인 1개 작품을 원칙으로 1개 작품의 출품품 수량은 15점까지다. 디자인, 규격, 색상 등이 같은 것은 3개 이내로 출품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 출품작일 경우 공동 작업에 대한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에 대해서 상품성, 품질 수준, 디자인, 창의성 등을 심사한다.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입상작 25점을 확정해 전남도 누리집에 발표한다. 입상자에게 상장, 소정의 시상금과 함께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제5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출품 자격이 주어진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공예대전을 통해 전통 공예기술을 전승하고 우수 공예품을 상품화하는 등 도내 공예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공예인이 우수한 작품을 준비해올해 전국대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53회 전남도 공예품 대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전남도 문화예술과, (사)담양군공예인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제52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출품한 전남도 대표 11점은 문화재청장상 2, 장려상 5, 특선 4점 등을 수상했으며 전남도는 단체 우승상을 받았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구례군은 지난 23일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라는 주제로 구례5일시장에서 군민들에게 구강건강 관리 캠페인 및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영구치 어금니가 처음 나오는 나이인 6세의 '6'자와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구'를 숫자화해 6월 9일로 정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구강위생용품 전시 및 올바른 사용법 교육,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는 주민에게는 올바른 틀니 관리 및 세척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틀니세정제를 배부하고, 더불어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세 곳에 설치된 틀니살균세척기를 홍보하여 틀니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규칙적인 칫솔질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구강위생용품을 배부했다.

김형진 구례군보건의료원장은 “이번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그동안 마스크 속에 가려져 챙기지 못했던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성현기자

신안군수, 슬로시티 국제 연대를 통한 비전과 실천 이행

신안군은 슬로시티 신안을 알리기 위해 2023년 국제 슬로시티 연맹 초청으로 총회에 25일 참석했다.

군수는 이날 오전부터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국제 슬로시티 대표자들과 만나 슬로시티 발전 방향과 이념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은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지정된 이후 그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사업과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22년 5년마다 진행되는 재인증 평가를 거쳐 2023년 6월 재인증 승인을 국제 연맹으로부터 받았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슬로시티 신안 활성화에 발판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슬로시티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우량 군수는 “슬로시티 신안은 천혜의 자연적인 신안군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



▲ 이탈리아 Parma auditorium 앞에서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 대표자들과 기념 촬영

을 해왔다.”라며 “이번 총회 참석으로 국제 슬로시티 연대로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에 대한 비전과 실천을 이행하겠

다.”라고 밝혔다.

최갑문기자



“충청권 메가시티 등 국토균형발전 중요한 시점... 현안.국비사업 등 예산전폭지지 필요”

대전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트램 건설 등 현안.국비사업 20건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와 국민의힘은 충청권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위해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2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충청권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지사가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충청권 발전을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필요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방안 논의와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출범이 벌써 1년이 됐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으며, 그 결과 15년간 착공하지 못했던 2호선 트램 착공 현실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160만평 지정, 우주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 방위사업청 이전 및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대기업 유치 등 많은 성과를 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설명한 지역 현안 및 국비사업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 드린다. 국가산단 160만 평 확보와 더불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한번 더 강조드린다. 나아가 충청권이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역민생 현안사업으로 ▲대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지역 현안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사정교~한밭대교 등

충청권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호남선 철도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 ▲대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도심융합특구 조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10개 사업을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역민생 현안 사업들을 정부예산에 더 담을 수 있도록 올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했다”라며, “트램 건설은 대전의 숙원 사업이며, 다른 현안들도 대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 4조 339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웹툰 IP 클러스터 조성 ▲배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보훈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우주산업 클러스터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 개보수 ▲대청호 천년(千年)의 숲 조성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건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반도의 중심인 충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며, “대전시에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예산심의 과정 전 기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었으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이어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현안과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사업 총 20건을 건의했다.

먼저, 2028년 국회세종의사람 완공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수도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케이티엑스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을 비롯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말로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

세종시, 미래전략수도 도약 위한 현안.국비사업 지원 요청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현안.국비사업 20건 건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세종의사람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높이고자 당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외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세종시법 개정 등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며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26일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현안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엄태영·장동혁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는 류재화 세종시당위원장과 김경희 세종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현안과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사업 총 20건을 건의했다.

먼저, 2028년 국회세종의사람 완공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수도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케이티엑스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을 비롯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말로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

종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2025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한글문화단지 조성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비지원비율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선정한 10가지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10가지 국비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8,000억 원 규모로, 이중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약 1,9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시가 선정한 주요 국비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글로벌센터 건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제2권번선 시설 건립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최민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 것처럼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도·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결핍,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대규모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세출수입 급증, 교부세 감소로 재정 3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세종시가 전국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교부세 산정방식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역과 기초분을 모두 교부받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하면서 “올여름 홍수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대비책도 꼼꼼히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최종근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더 건강한 철원 만들기

철원군보건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더 건강한 철원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클래스」라는 명사들의 건강 강연을 개최한다.

건강 클래스는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석정 철원관광정보센터 임객정 리더십관에서 건강관련 체험부스와 함께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높아지는 흡연율, 40대 이후 증가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이로 인해 늘어나는 약 복용 문제 등 우리 지역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6월 27일 성군관대 권준경 교수의 「내 몸을 바로 세우는 바른자세」란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28일은 철원군 약사회 회장인 김태규 약사의 「건강한 약 복용, 공금한 약 이야기」, 29일은 「비타민」 「생로 병사의 비밀」 등 방송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강북삼성병원 강재현 교수의 「잘먹고 살빼는 건강한 다이어트」, 마지막 30일은 국립중앙의료원 초대 원장인 박재갑 교수의 「명인에게 듣는다-속이 병 뚫리는 건강 이야기」란 주제이다.

이준재 보건소장은 “이번 건강 클래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건강 관리법을 통해 더 건강한 철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클래스와 함께 철원군은 6월 29일 오후 1시 고석정 철원관광정보센터 임객정 리더십관에서 상반기열린학습관 노규식 박사의 강연도 진행한다.

이동원/기자

제4회 천안시장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어울림대회 개최

3개 세부종목에서 17개 시도 장애인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인 100여 명 열띤 경쟁

지난 24일 천안시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제4회 천안시장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어울림대회’가 개최됐다.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천안시장배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주관, 천안시장배장애인체육회 재정후원, 한국마사지 천안지사·스포츠·(주)레인보우테크·아이린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좌식혼성4인조(통합), 지적(통합), 청각(통합) 3개의 세부 종목에서 17개 시도 장애인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인 100여 명의 선수단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또 청소년홍서포터즈단과 단국대학교 제약공학과 재학생,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재학생 등 자원봉사자들도 대회를 보조하는 데 힘썼다.

추용식 천안시장배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은 “천안시장배장애인배드민턴협회 임원과 천안시장배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봉사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면서 “먼 길 오신 참가자들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전국장애인동호인 선수들과 함께 정보교류 및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장애인 체육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양양남대천, 올해 관광객 90만명 이상 왔다 갔다..증가 추세

데이터 활용, 관광객 수 및 주요 연령층 등 분석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재탄생한 양양남대천이 올해 90만명 이상이 다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부상을 입증했다.

군이 조사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양양남대천의 관광객 수, 주요 연령층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광객 9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고, 그 중 40~60대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월부터 3월까지의 50만 2천명이, 남대천의 꽃과 나무가 번성하기 시작한 4월과 5월에는 날들이하러 온 방문객들로 각각 19만 8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관광객수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10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254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2021년도에는 227만명의 관광객이, 2022년에는 25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남대천 르네상스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생태환경 복원과 생태관광지 조성,



수변 산책로 및 휴게센터 조성 등으로 자연성을 회복되고 친수공간으로 정비되어 수변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남대천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광 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같이 명품하천으로 거듭나며, 생태공원, 주민참여정원, 자연생태관찰로, 파크골프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등 자연

친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남대천이, 생태와 문화가 지속적으로 공존하여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맘껏 힐링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피로를 날릴 방법을 찾는다면, 생태를 관찰하며 걷고 힐링할 수 있는 남대천 나들이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태백시, 코미디언 이용식 초청 특별 공연 '웃어야 오래 산다' 개최

태백시는 오는 7월 6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코미디언 이용식 초청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웃어야 오래 산다’라는 주제로 코미디언 이용식이 초청되어 웃음의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과 함께 전할 예정이다.

코미디언 이용식은 도양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975년 MBC 코미디언 1기로 데뷔했으며, 대표적인 출연작으로는 《뽀뽀뽀》, 《일요일밤의 대행진》, 《웃으면 복이 와요》, 《하마탕 웃음으로》, 《폭소대대전》, 《내고향 흥을씨고》, 《내가 진

짜 스타》, 《나는 몸신이다》, 《건강방송 먹어야 돼지》 등이 있으며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부문 최우수상, 제23회 한국백상예술대상 코미디 연기상, 제3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희극인상, 제1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대상, 제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용식 외에도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한 이수민과 뮤지컬 배우 원혁이 함께 출연해 노래 공연을 하는 등 흥을 돋울 예정이다.

유상근/기자

코미디언 이용식 초청 특별 공연
"웃어야 산다"



○ 일 시: 2023. 7. 6. (목) 14:00~16:00
○ 장 소: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석대상: 주민 누구나/ 무료공연 /선착순
입장(13:30~).

문의: 550-2751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더 건강한 철원 만들기
건강클래스운영안내

일 시 2023. 6. 27. (화)~6. 30.

장 소 철원관광정보센터(고석정) 임객정리더십관

내 용 건강강좌 및 건강관련 체험 부스

대 표 건강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연령 제한 없음)

건강강좌 (강의시간: 매일 1시간 30분(예정))

일시	강사	강의주제	비고
6.27. 14:00	내용물 박주은은 박은지씨	관문교수	삼릉대학교 교수
6.28. 14:00	관문교수	관문교수	철원군 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대표
6.29. 14:30	장제고 살빼는 건강한 다이어트	장제고 살빼는 건강한 다이어트	강북삼성병원 교수 유명대학교 교수
6.30. 14:00	명인에게 듣는다-속이 병 뚫리는 건강 이야기	명인에게 듣는다-속이 병 뚫리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 문의: 철원군보건소 건강홍보팀 450-4582

경북도, 인도네시아와 상호 협력사업 확대 논의

이달의 부지사, 밤방 수사트요 국민평의회 의장과 새마을 교류, 수도이전 시 협력키로



▲삼화기계 자카르타 현지공장방문

이달의 경제부지사 일행은 2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에서 진출한 지역 기업인 삼화기계 공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는 등 인니와 상호 교류 협력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나섰다.

경산에 본사를 둔 삼화기계는 부직표 섬유기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독일산 섬유기계를 대체함과 동시에 독일로 역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미국, 중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등 20여개 국가로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밤방 수사트요 국민평의회 의장을 만나 새마을사업, 대학 간 인적교류, 투자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밤방 수사트요 국민평의회 의장과는 만남에서 의장은 경북기업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고, 경북의 새마을 운동과 대학 간 상호교류, 전문 인력 교류, 방산분야의 협력, 新(신)수도 이전 시 관련 기업의 투자 및 진출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이달의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새마을 세계화를 통해 성장을 위한 모범사례를 유엔과 공유하면서 17개국 75개 지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향후 정부와 연계해 K-새마을의 세계화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대학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중 가장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대학 간 협력 및 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으며, 기남금속 등 新(신)수도 이전에 따른 진출 가능한 기업이 경북에도 많이 있다. 특히 방산기업도 구미, 경주, 경산 등에 소재하고 있어 상호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달의 부지사는 투자조정부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상호 협력 가능 분야의 발굴 및 경북기업의 인니 진출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기존에 진출한 제일연마, 삼화기계, 동일산업, 성진정밀과 찌까랑 지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1차 밴드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수출지원유관기관, 경북도 해외자문위원 등과 만남을 통해 경북도 수출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및 시장개척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새마을, 방산, 전문 인력 교류 등 경북이 가진 강점과 한류를 연계한 새로운 수출 확대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투자 및 통상교류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남원시, 디지털 트윈 기반 천연물 바이오 소재개발 국가과제 선정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중추기술 R&D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디지털 트윈으로 기능성 성분 중심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메디푸드 및 기능성 화장품 등 바이오 소재와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남원바이오연구원과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는 7억5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최근 남원시는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이후 그동안 산업집적화 분야에 성과를 거두었던 화장품산업을 기반으로 천연물 바이오산업으로 지역성장동력산업을 확장하면서 천연물 기반 바이오소재개발

과 원료공급 및 제조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기능성 바이오 소재 공급을 위한 이른바 스마트팜 형태의 디지털 정밀재배가 새롭게 부각 됨에 따라 남원시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기능성 성분 수요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 소재 개발과 지속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전라북도와 관련 전문기관과의 기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생태환경조성사업 및 실증사업 등 연속적인 후속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천연물 바이오산업의 거점 도시로서 남원시가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서울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3일 개최...유엔 등 17개기구 채용정보 공개

국제기구별 채용제도, 이력서 작성요령 등 취업 노하우 공유, 모의면접으로 실전감각↑

유엔사무국·세계보건기구(WHO),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시티넷(CityNet) 등 국제기구에 취업해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방문하자.

서울시와 외교부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7월 3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되며, ▲ 해외국제기구(10개) ▲ 서울 소재 국제기구(7개) 등 총 17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2015년부터 서울시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연평균 6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소재 국제기구(10개)는 현장에서



모의면접을 진행하고, 해외 국제기구 인사관계자가 직접 소개하는 기구별 채용 제도, 이력서 작성요령 등 생생한 취업 노하우를 들 수 있다. 더불어 현장 모의면접을 통해 실전 감각도 익힐 수 있어, 국제기구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소재 국제기구(7개)는 모의면접과 채용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여기에 참가하는 국제기구들로부터 국내 채용 및 인턴십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구별 활동 현황을 전시하는 홍보전도 진행한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국제기구 모의면접 참가 희망자는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서울 소재 국제기구 모의면접 희망자는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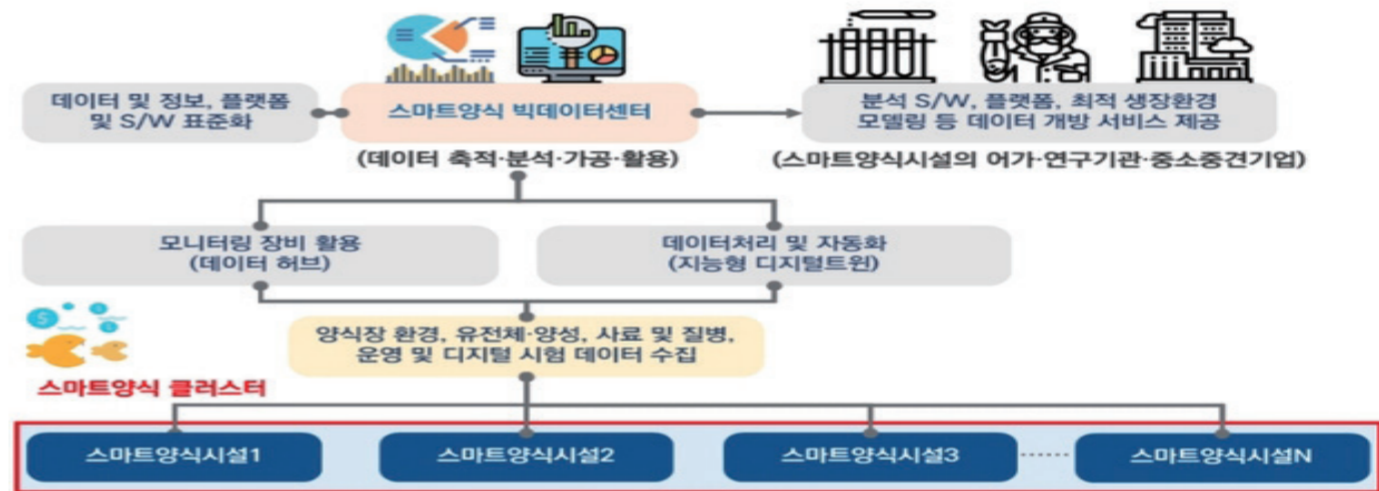
참가할 수 있다.

김기현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4년 만에 서울시청에서 다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제기구 진출이나 해외 취업을 꿈꾸고 있는 많은 참석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구와 직접 소통할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지자체 공모

총 사업비 170억 원 투입해 2025년까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사육조건을 도출하고, 양식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하는 스마트양식 기반시설이다.

현재 수산양식 데이터는 공공기관, 일부 양식어가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나, 특정 어종에 치우쳐 있고 표준 규격도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부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실증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7월 25일까지 공문 및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

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가 그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식업의 스마트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북도,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도·서울대학교 글로벌 R&DB센터·(재)전북테크노파크 협력체계 구축



전북도와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이차전지 등 전북의 미래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도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황준석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장, 이규택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미래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도는 최근 새만금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 등 초격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입주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북을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연

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前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부센터장을 역임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사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전북 정착형 글로벌 인력양성 거점 설치 및 프로그램 공동운영, △새만금 입주기업 및 전북 주요기업 대상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등이다.

전북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LG화학 등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공항·항

만·철도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산업 기반이 빠르게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투자 기업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촉진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전북에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연구기관 집적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의 역량이 전북의 혁신연구 역량을 더욱 배가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차전지 등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연구 교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전북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센터는 2003년 설립됐으며, 70여 개국 3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기술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2023 부산푸드필름페스타, 6월 30일 개막!

6.30. 19: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막행사로 '오프닝나이트' 개최

부산시는 영화에 음식의 맛을 더한 축제 '2023 부산푸드필름페스타(Busan Food Film Festa)'가 오는 6월 30일 '오프닝나이트(Opening Night)'를 시작으로 3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2023 BFFF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나이트'는 6월 30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올해의 메인 주제 및 프로그램 소개 ▲세레나데의 뮤지컬 주제공연 ▲개막작 '입천장'까지도 오각작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000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빵, 행복을 굽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2023 BFFF에는 세 개 부문(블랑제리, 파티스리, 무비 다이닝)으로 나눠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영화 9편을 선보인다.

또한, 영화 상영 전 영화 속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들을 수 있는 BFFF의 프로그램들과 함께하는 영화 가이드 '국특'을 시작으로 영화 속 음식을 직접 맛보고 알아보는 미식클래스 '푸드테라스', 부산푸드필름페스타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나이트크루즈 푸드테라스'가 올해도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별마다부산 나이트푸드테라스'로 명칭을 변경해 시민들에게 다가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화제의 미공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주주(主酒)클럽', 트렌디한 푸드트럭과 이색적인 음식점들의 팝업스토어 '푸드존'을 운영하며, 올해의 주제에 맞춰 부산을 대표하는 제과 명장인 이흥용 명장을 초청해 재미있는 푸드 콘텐츠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외극장에서도 테마존, 푸드존, 푸드트럭, 플라마켓, 포트럭 테이블 등 관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부산푸드필름페스타의

관객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포트럭 테이블'에서는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가지고 온 음식을 다양한 공연과 행사, 영화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부산의 우수한 수산물을 선보이고 홍보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홍보 및 특화상품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며, '테마존'에서는 주제인 '빵'에 맞추어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 블랑제리와 파티스리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날 수 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 "영화에 음식의 맛을 더한 부산만의 특색있는 행사인 부산푸드필름페스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2023 BFFF 상영작 및 프로그램은 영화의전당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소식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만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준진기자



화성시, 광고·홍보 대전 "별별화성 Awards" 시상식&페스티벌 개최

화성시가 다음달 1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2023 화성시 광고홍보대전 "별별화성 Awards" 시상식&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화성시 광고홍보대전 "별별화성 Awards"는 제3회 화성시 공모전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 스타(20초영상/포스터), SNS 콘텐츠 스타(자유영상/사진)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광고 부문을 도입했다.

화성시의 매력이 담긴 다채로운 콘텐츠가 총 686건 출품됐으며, 이중 28작품이 수상하게 된다.

시상식은 기존과 다르게 수상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참석해 즐길 수 있도록 축제 형식으로 개최되며, 시상식에 어울리는 레드카펫과 포토존이 설치되어 화성시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 티렉스 인형탈과 함께 자유롭게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또한, 비보잉 그룹 텍시보이, 아가펠라 그룹 엑시트 등 풍성한 공연과 오케딩연구소 오두환 대표의 '지금온 브랜딩의 시대! 브랜딩가 전부다!'를 주제로 퍼스널 브랜딩 강연 및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여 응모해주신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시민들이 화성 곳곳에 숨어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 9시부터 13시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 분수 데크 앞에서 전시되며 다음달 3일 이후 별별화성 공모전 홈페이지(별별화성.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시현기자



속초시 팝핀현준, 박애리와 함께하는 '춤추는 관현악' 개최!

7월 15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려... 27일부터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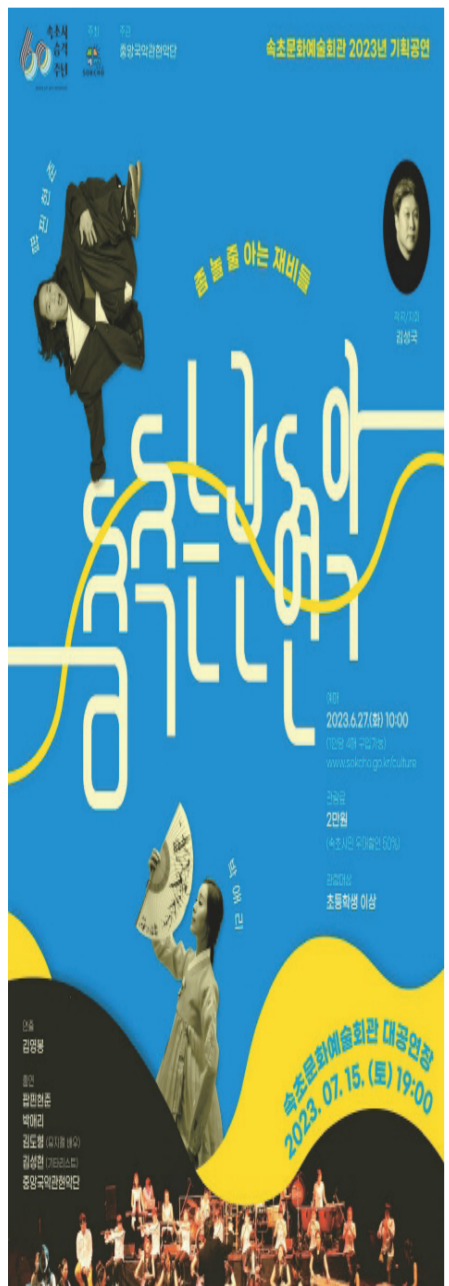
속초시가 시 승격 60주년 기념 7월 특별 기획공연으로 7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팝핀 현준, 박애리와 함께하는 '춤추는 관현악''을 개최한다.

2011년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초연된 '춤추는 관현악'은 국악기 중심의 국악관현악 편성에 디지털 악기가 더해진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국악기의 특별함과 디지털 악기의 대중적인 면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으며 전국이 한국민요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우리의 민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또한 연주자들은 연주 시 모든 곡을 악보 없이 연주하며 춤을 추고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는데 특별히 이번 공연은 명창 '박애리'와 춤의 신 '팝핀현준', 뮤지컬 배우 '김도형'의 노래, 기타리스트 '김성현'의 기타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무대예술의 진수를 보여 줄 예정이다.

본 공연 예매는 6월 27일 화요일 10시부터 속초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1인당 최대 4장까지 가능하고, 관람료는 2만원으로 속초시민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등원기자



광양시 홍보대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세계신기록 깨다!

'4시간 25분'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신기록 달성

광양시는 광양시 홍보대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25일 일본 오사카시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 세계신기록을 깨고 밝혔다.

이날 도전은 일본 오사카시 고려축구협회 초청으로 제26회 오사카시 고려배 국제축구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국제환경운동가 조승환 씨는 지구온난화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고흥 우주항공축제에서 자신이 세운 '얼음 위 맨발' 세계신기록 4시간 22분에 도전하여 '4시간 25분'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광양 출신으로 광양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조승환' 씨는 영화 30대 한라산 맨발 등반, 세계 최초 후지산(3,776m) 맨발 등반,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맨발 국토종주(광양~임진각 427km)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기록을 거듭 경신해 나가

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후 등의 선동에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도전에 성공한 조승환 씨는 "빙하를 뜻하는 '얼음' 위에서 지구를 표현하는 '맨발'로 오래 서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전세계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후 위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내와 집중력을 갖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한 것에 대해 광양인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앞으로의 도전도 광양시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는 오는 8월에는 베트남, 10월에는 중국, 11월에는 독일에서 자신의 세계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신안군 '섬 수국축제' 2만여 명 다녀가

환상의 정원(팽나무 10리길)과 1004만 송이 수국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유혹



신안군은 수국의섬 도초도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 일원에서 열린 '섬 수국축제'에 2만여 명 다녀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배로 가는 1004만 송이 수국축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수국센터를 개관하여 방문객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1층 전시실에 수국을 주제로 한 유명 작가의 작품도 전시했다. 도초도는 목포에서 54.5km 떨어진 섬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불편한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이 수국을 즐겼다.

수국축제장에는 마이크로필라, 산수국, 목수국 등 100여 종의 1004만 송이 수국이 피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수국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꽃을 감상하고 즐기는 모습이 큰 인상을 주었다.

축제는 마무리 됐지만 수국은 7월 중순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9월에는 가을 목수국과 팜파스그라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경환 추진위원장은 "섬 수국축제는 꽃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방문

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섬 가을 수국축제에서도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 강소형잠재관광지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된 '도초 환상의 정원'과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로 유명한 도초도에서 열린 이번 섬 수국축제는 신안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2023년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으로 선정되어 이번 여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될 대표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최갑문기자

국악인 송소희가 들려주는 향토민요 이야기...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스마트 우리소리 전시 해설 서비스 운영



국내 유일 민요 전문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종로구 율곡로 96)은 6월 23일부터 위치기반 자동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우리소리 전시 해설'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광객들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통해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상설전시의 해설을 들을 수 있고 민요 음원, 영상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스마트 우리소리 전시해설' 서비스의 해설은 '국악소녀'로 대중에게 알려진 국악인 송소희가 맡았다. 송소희는 경이민요 소리가로서 어린 시절부터 단단하고 꾸준하게 음악적 활동을 이어온 아티스트다. 이번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상설전시 해설을 맡아 우리소리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향토민요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스마트 우리소리 전시 해설 서비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전국 향토민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비콘(Beacon) 기술을 활용한 위치기반 인식 전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관광객 맞춤형 민요 추천 서비스를 편리하고 똑똑한 박물관 관람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상설전시 해설 : 관광객들이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상설전시실에 들어서면 전시 해설 체험이 시작된다. 자동으로 체험 진행 기능팝업창이 실행되며,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국악인 송소희가 들려주는 상설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전시물 위치에 관광객이 접근 하면안내 팝업 및 음성해설이 진행된다. 음성해설을 들은 이후 해당 코너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향토민요 음원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또한 향토민요 음원 외에도 가사와 민요에 대한 정보, 관련 이미지,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민요의 경우

'좋아요' 및 '나만의 소리' 리스트에 담을 수도 있다.

우리소리 테라피 : 관람객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적합한 음원 목록이 노출되는 '추천 우리소리'는 관람객들이 입력한 간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연령, 성별, 좋아요 등의 통계를 기준으로 적합한 음원 목록을 노출해 나의 취향에 맞는 향토민요 음원을 감상해볼 수 있다. 16가지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국악인 송소희가 맡았다. 송소희는 경이민요 소리가로서 어린 시절부터 단단하고 꾸준하게 음악적 활동을 이어온 아티스트다. 이번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상설전시 해설을 맡아 우리소리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향토민요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스마트 우리소리 전시 해설 서비스는 한 국어 외에도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해 영어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우리소리인 향토민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소개할 예정이다.

사라져가는 우리소리를 듣고 체험하는 국내 최초 향토민요 전문박물관으로 지난 2019년 개관한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김경미 서울특별시 박물관과장은 "이번 '스마트 우리소리 전시 해설 서비스'는 영어로도 제공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소리를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기술과 문화예술이 결합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향토민요의 소중한 가치를 보다 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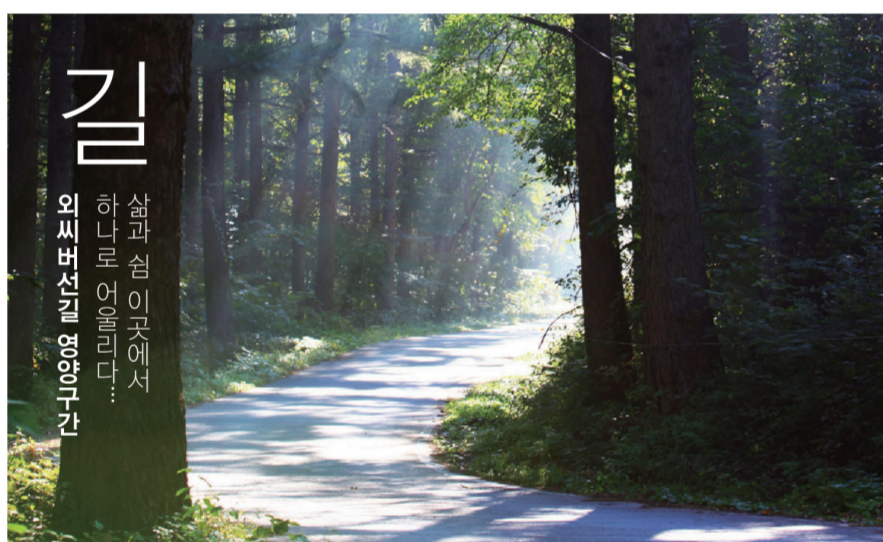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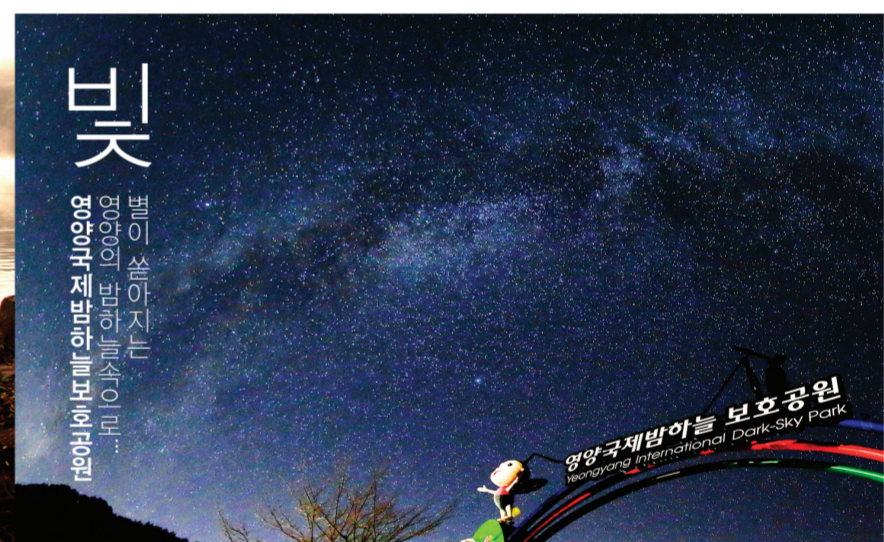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역사적으로 영영하는



물
영양의 푸른빛이
영양에 영영하는
영영한 영영한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이
영영한 영영한 영영한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적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